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朴 時 翼

風水測量을 통한  
西五陵(敬陵)의 四神沙 分析

2006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不動產大學院

風水地理專攻

李 德 炯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朴 時 翼

風水測量을 통한  
西五陵(敬陵)의 四神沙 分析

위 論文을 不動產學 碩士學位論文으로 제출함.

2006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不動產大學院

風水地理專攻

李 德 炯

李德炯의 不動産學 碩士學位 論文을 인정함

2006年 12月 日

심사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 - 目 次 -

|                                    |    |
|------------------------------------|----|
| 제 I 장 서론 .....                     | 1  |
| 제 1 절 연구목적 및 배경 .....              | 1  |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 3  |
| 제 II 장 풍수지리의 기본 이론 .....           | 4  |
| 제 1 절 한국지세(韓國地勢)와 풍수지리 .....       | 4  |
| 1. 우리국토 지세의 특성 .....               | 4  |
| 2. 한국풍수지리의 이론적 배경 .....            | 5  |
| 제 2 절 풍수지리(風水地理)의 이론적 기초 .....     | 16 |
| 1. 명당을 만들어주는 풍수지리의 5대 요소(要所) ..... | 16 |
| 2. 용(龍)과 변역(變易) .....              | 19 |
| 3. 사신사(四神砂) .....                  | 25 |
| 4. 바람(風)과 물(水) .....               | 34 |
| 제 III 장 조선왕릉의 탐구 .....             | 36 |
| 제 1 절 조선왕릉(朝鮮王陵)의 기초이론 .....       | 36 |
| 1. 조선시대 능역의 입지적 기준 .....           | 36 |
| 2. 조선왕릉 능침주변의 소나무 .....            | 38 |
| 제 2 절 조선왕릉(朝鮮王陵)의 구성 .....         | 41 |
| 1. 조선왕릉의 공통조건과 무덤의 구분 .....        | 41 |
| 2. 조선왕릉의 제조기관 .....                | 42 |
| 3. 조선왕릉 용어해설 .....                 | 43 |



제 IV 장 서오릉의 경릉(敬陵)에 대한 사례연구 ..... 48

제 1 절 서오릉의 기초자료 ..... 48

- 1. 서오릉의 조성 현황 ..... 48
- 2. 서오릉의 자연환경 ..... 50
- 3. 서오릉의 입지적 특성 ..... 51
- 4. 서오릉의 산경내맥 ..... 51

제 2 절 경릉의 기초자료 ..... 54

- 1. 경릉(敬陵)은 누구의 무덤인가? ..... 54
- 2. 경릉(敬陵)의 득지과정 ..... 59
- 3. 경릉의 특징 ..... 67
- 4. 경릉(敬陵)의 발복 ..... 68

제 3 절 풍수측량을 통한 경릉의 사신사 분석 ..... 70

- 1. 태조산에서 경릉까지의 지형지세 ..... 70
- 2. 풍수측량 ..... 71
- 3. 풍수측량을 통한 사신사 분석 ..... 74
- 4. 용맥과 주룡의 참고사진 ..... 76

제 V 장 결론 ..... 81

참고문헌 ..... 83

ABSTRACT ..... 85

논문요약 ..... 87

## 도표목차

|     |                        |    |
|-----|------------------------|----|
| 표 1 | 오행과 방위의 관계 .....       | 12 |
| 표 2 | 혈장 조건별 역할 현황 .....     | 15 |
| 표 3 | 경릉의 내룡맥 풍수측량 성과표 ..... | 72 |

## 그림목차

|       |                          |    |
|-------|--------------------------|----|
| 그림 1  | 우리나라 산경도 .....           | 4  |
| 그림 2  | 보현봉에서 비봉으로 연결된 산줄기 ..... | 5  |
| 그림 3  | 삼태극 .....                | 8  |
| 그림 4  | 명당도 .....                | 16 |
| 그림 5  | 용 맥 .....                | 19 |
| 그림 6  | 수 산 .....                | 20 |
| 그림 7  | 목 산 .....                | 20 |
| 그림 8  | 화 산 .....                | 21 |
| 그림 9  | 토 산 .....                | 21 |
| 그림 10 | 금 산 .....                | 21 |
| 그림 11 | 산의 앞 .....               | 23 |
| 그림 12 | 서오릉 경릉의 현무 .....         | 25 |
| 그림 13 | 입수, 혈, 주작 .....          | 26 |
| 그림 14 | 경릉의 백호 .....             | 27 |
| 그림 15 | 광릉의 관쇄 .....             | 27 |
| 그림 16 | 입수두뇌 .....               | 28 |
| 그림 17 | 선 익 .....                | 29 |
| 그림 18 | 창릉의 전순 .....             | 30 |
| 그림 19 | 신격호 증조모 묘소 .....         | 32 |
| 그림 20 | 신격호 부친 묘소 .....          | 33 |

|                                       |    |
|---------------------------------------|----|
| 그림 21 밀양의 돌혈 전순 .....                 | 33 |
| 그림 22 신격호 부친묘소 삼합 득수처 .....           | 35 |
| 그림 23 왕릉의 지세 .....                    | 37 |
| 그림 24 능 .....                         | 41 |
| 그림 25 묘 .....                         | 42 |
| 그림 26 능 상설도 후면 .....                  | 46 |
| 그림 27 서오릉의 분포현황과 수계(水界) .....         | 49 |
| 그림 28 경릉 전경 .....                     | 54 |
| 그림 29 경릉의 간소한 석물 .....                | 60 |
| 그림 30 세조의 내심 .....                    | 66 |
| 그림 31 좌하(左下) .....                    | 67 |
| 그림 32 우상(右上) .....                    | 67 |
| 그림 33 경릉의 풍수측량 .....                  | 71 |
| 그림 34 경릉 용맥 측량도 .....                 | 73 |
| 그림 35 경릉의 현무정을 향하여 힘차게 오르는 생룡 .....   | 76 |
| 그림 36 오른맥 후 현무로 향하는 생룡 .....          | 76 |
| 그림 37 현무에서 경릉의 내룡맥으로 향하는 용의 등줄기 ..... | 77 |
| 그림 38 현무에서 내려온 경릉의 혈 .....            | 77 |
| 그림 39 경릉의 잉(孕) .....                  | 78 |
| 그림 40 경릉의 안대 1 .....                  | 78 |
| 그림 41 경릉의 안대 2 .....                  | 79 |
| 그림 42 경릉과 소혜왕후 용맥 측량도 .....           | 80 |

# 제 I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풍수지리설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결코 간결하게 해 낼 수는 없을 것이다.<sup>1)</sup> 그러나 풍수지리는 “사랑의 실천”이며 발복은 “영혼의 보답”이다. 즉 풍수는 인간의 본질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sup>2)</sup>

우리생활 속에서 풍수지리를 논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풍수지리를 폄하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의 안락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후손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수단, 삶의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명당(明堂)을 찾으려 동분서주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과거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를 거쳐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좋은 터 즉 명당을 찾기 위해서 기울인 흔적을 살펴보면 “터”의 용도상 규모의 차이는 발견할 수 있어도 명당의 조건은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의 시신을 안치하여 발복을 갈구하는 음택풍수와 산자들이 거주하면서 좋은 기(氣)를 받기 위하여 찾는 양택풍수가 두 가지의 자리 잡기는 규모에 있어서의 차이만 있을 뿐 이론적인 배경은 차이가 없다. 유교사상을 신봉하는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풍수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방대한 풍수자료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일례로 세종 15년인 1433년 7월 3일부터 시작한 풍수논쟁은 세종 23년인 1441년 6월9일까지 9년간이나 지속 되어온 조선조 최대 풍수논쟁이었다. 내용은 일주일궁의 문제로 한양천도 때 경복궁(一宮)의 주산(一主)이 잘못 전해졌으며, 한양의 풍수상 주산은 백악이 아닌 응봉이 되는데 응봉의 산줄기 아래에 있는 창덕궁마저 자리를 잘못 잡은 별궁이라는 것이다. 이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왕조를 대표하는 국풍(國

1) 최창조, 한국의풍수사상, 민음사, 서울1984, p21

2)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14

風) 최양선 이었고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세종과 황희 등 당시 조정대신 대부분 이었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살펴볼 사항은 세종을 비롯하여 조정대신 대부분은 풍수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조선의 풍수는 유교풍수로서 낮에는 유교적인 사고로, 밤에는 아무도 모르게 풍수를 공부했던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풍수지리학(風水地理學)이 담고 있는 참뜻(眞實)을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발복의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며, 현장풍수는 조선왕릉을, 발복의 증거는 조선왕조실록을 통하여 풍수지리의 이론과 발복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과 배경으로 삼았다.

주역에서는 “하늘을 따르는 자는 살아갈 수 있지만,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살아남기 힘들다”<sup>3)</sup>라고 하였듯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기에 인간이 살고 있는 주변의 자연환경 중 가장 살기 좋은 곳을 찾아내는 방법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우리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여 하고자 본 논문을 작성하며, 풍수지리학의 핵심(核心)은 “사랑의 실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 이다.

---

3)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14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우리나라의 지형지세에서 “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세론(地勢論)적인 관점(觀點)에서 용(龍)과 용맥(龍脈)이 그리고 용의 변역(變易)에 의한 본신룡(本身龍)의 개장천심(開張穿心)한 결과인 혈(穴)이 후손의 삶에 미치는 영향(發福)을 연구, 분석 하였다.

조선왕릉(朝鮮王陵)중 왕권(王權)이 강했던 시대에 조성된 왕릉을 대상으로 선택하여 터가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세론적(地勢論的) 측면에서 고찰하고, 왕릉(王陵) 매김질 후 후손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왕실의 기록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통하여 검증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는 조선 7대왕인 세조(世祖)의 첫째 아들 의경세자(懿敬世子)(후일 덕종(德宗)으로 추존(追尊))의 혼궁(魂宮)인 경릉(敬陵)을 대상으로 하였다. 의경세자 승하(昇遐) 후 후손의 발복과 왕권수호(王權守護)를 위하여 부왕인 세조가 명당(明堂)을 찾는 과정과 경릉조성 후 나타난 발복(發福)의 증거들을 왕실기록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통하여 도출하고, 경릉의 현무(玄武)에서 혈(穴)까지를 현대적인 장비로 측량(測量) 하여, 경릉의 혈이 명당(明堂)에 명혈(明穴)인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즉, 용(龍)과 용맥(龍脈)의 변역(變易)과 분벽(分擘)등이 생룡맥(生龍脈)으로 진행되어 개장천심(開張穿心)을 하여 만들어진 혈이 정혈인지를 지세론적 측면에서 측량 한 후, 측량 성과도(成果圖)를 통하여 확인하고, 풍수지리 전통이론과 대비(對比)시켜 경릉의 혈이 명혈인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제 II 장 풍수지리의 기본 이론

### 제 1 절 한국지세의 특성

#### 1. 우리나라 지세의 특성

우리나라 지형의 특성은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을 중심으로 급경사의 동해사면이 좁게 발달한 반면 서해 사면은 완만한 경사로 점차 낮아지면서 서해에 이르고 있다.<sup>4)</sup> 이와 같은 경동 지형적 특색은 결과적으로 고산준봉의 산지지형의 발달과 분포, 저지와 평야지형의 발달과 하천 흐름의 양태 등에 뚜렷한 차이를 가져오게 하여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땅을 사용하는 부분을 결정 짓게 하였다.



그림 1 우리나라 산경도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약75%를 산지가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저 기복을 이루고 있으며 평균고도가 482m에 불과하여 전세계 육지의 평균고도 875m에 비교하여 보면 매우 낮은 고도이지만 경사도 5%미만의 평탄지가 약 23%에 불과하며 평야는 주요 산맥들에 의하여 단절 되어 있다. 전국토가 1 대간 1정간 13 정맥으로 이루어져 산과 산이 하나의 연결선상에 놓여 저 있는 지형 지세로서 우리나라 지형지세의 고유의 특성이기도하다. 명당의 조건으로서 가장 중요시 하는 사항으로 첫째 산과 산이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야하고, 둘째 평균고도가 낮

은 지역으로서 고기압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이런 지형지세에서만 명당(明堂)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4) 권영식, 지형분석, 교학연구사, 1995, p272

우리나라의 산세지형의 특성은 산이 가지(枝)를 뺏어내려 내려 나뉘면서, 산과 산이 능선으로 이어져 형성되어 있고 지기(地氣)도 이 능선



을 따라 맥근층(脈筋層)으로 이동하며 이어져 있다. 이러한 우리 국토 산세지형의 모습들은 변역법칙원리에 따라 산봉우리가 생겨나고, 좌우로 구불구불하여 능선이 생기고 변역(變易)하면서 형성되며 이때 땅의 기운이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다시 능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다섯 가지 법칙질서(五變易法則)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변역법칙질서 속에서 변역한 용맥은 그 기운(氣運)이 안정되어 있어서 그 용맥의 지기(地氣)가 양호하다는 것이 우리국토 산세지형의 특성이다.

그리고 우리 국토는 나뭇가지가 위로 솟아오를 때 줄기를 중심으로 가지를 사방으로 뺏어 나가면서 양팔을 벌려 끌어안듯이 국(局)을 형성한다. 이러한 곳은 매우 좋은 자연환경 조건으로써 아주 넓은 곳은 대도시가 형성되고 그 다음으로 넓은 곳은 중소도시가 형성되며, 작은 곳은 살기 좋은 마을이 형성되는 등 아주 좋은 삶터로써 적합한 곳이 된다.

## 2. 한국풍수지리의 이론적 배경

한국풍수지리의 태동과 지세론의 배경이 되는 이론적 근거를 고찰하여 풍수지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 1) 풍수지리의 핵심은 사랑의 실천

사람은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해서 이들의 양과 음이 사랑으로 결합한 결과 생명체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과 땅의 기운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이 하늘과 땅의 기운에 따라 생명력을 부여받는다. 그러므로 하늘



과 땅은 만물의 아버지와 어머니다.

명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혈”이라는 말도 음양 이론을 바탕으로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혈은 곧잘 여성의 자궁에 비유되는데, 생명력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음기와 양기가 결합되며, 생명을 잉태한다. 여기에서 음기는 땅의 기운을 양기는 하늘의 기운을 뜻한다. 풍수적 자연관, 풍수적 인간관이 가르쳐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사랑이다. 아버지인 하늘을 우러르고 어머니인 땅을 사랑하며 그 자녀인 인간과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다. 하늘이 자신의 기를 땅에게 무한히 전달하는 것이 사랑이다.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자연의 사랑이다. 풍수 이론의 핵심은 땅과 자연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다. 사랑하는 눈이 없고서야 땅의 온화함과 평화로움이 느껴질 리 없다. 남이야 어쨌든 나만 좋은 땅을 차지해 그 덕을 얻어 잘살아 보자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이에겐 풍수는 단지 잡술일 뿐이며,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에 명당을 볼 수 있는 혜안이 생길 리 없다. 명당은 돈을 짊어지고 이름난 지관을 써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이웃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지는 신비한 자연의 섭리다. 따라서 풍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덕을 많이 쌓으면 명당을 얻을 수 있다.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씻고 기도를 드리는 인간의 모습, 사람과 자연 그리고 하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간직할 때 명당은 스스로 나타난다. 즉 하늘에 순응하고 사랑으로 자연을 바라보면, 명당이 저절로 보인다. ‘좋은 땅’은 ‘좋은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착한 사람들은 하늘을 아버지처럼 믿고 두려워하며 땅을 어머니처럼 의지하며 살아간다. 진정으로 좋은 땅을 원한다면 자연과 더불어 살며 본성을 되찾아야 한다. 풍수의 도(道)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과 땅,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다.<sup>5)</sup>

## 2) 한국의 삼신 오제 사상

한반도에 살던 고대인들은 오래 전부터 강력한 독립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하느님을 숭배하며 높은 산 정상에서 제사를 지냈

5)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p39-40

다. 하느님은 조물주로서 모든 인간과 자연을 창조하는 유일한 신이었다.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하는 작업은 삼신(三神)을 통해 이루어진다.

곧 삼신은 하느님을 대신해서 사람의 생사와 관련된 역할을 한다. 삼신 사상에는 유교에서 주장하는 현실 세계와 불교에서 주장하는 마음, 곧 영혼의 세계 그리고 신선 사상에서 주장하는 인간과 영혼의 합일 사상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유교 이론은 현실 세계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 규명하고 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곧 자기 몸을 바로하고 가정을 일으키며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유자(儒者)가 학문하는 목적이다. 이러한 유교 이론은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영적 세계나 내세에 대한 해석은 부족한 감이 있다.

유교 사상의 중심 이론서인 『주역』은 만물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본질인 태극은 음과 양으로 나뉘며 이 둘은 항상 변화한다고 본다. 하지만 음과 양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주로 언급하고, 변화하지 않는 고유한 부분인 태극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좀 더 완벽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변화하지 않는 태극과 변화하는 음과 양의 세 요소로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람의 신체조건이 시간과 더불어 변화한다는 사실만 나타나 있고,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과 같다.

반면 불교에서는 현실, 곧 물질세계는 순간적으로 소멸되므로 무시하고 오직 마음의 세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세를 인생의 본질로 생각하고, 물질세계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신선 사상이나 도교는 인간의 본질을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해석한다. 신선 사상의 근원은 단군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단군 사상에 의하면 사람의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신선 사상은 영혼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어 신인합일(神人合一) 사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영혼과 현실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해 현실 도피 이론이 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삼신 사상은 현실 세계는 영혼의 세계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영혼의 세계가 현실 세계로 나타난 것이 현상 세계다. 영혼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는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혼의 세계인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죽으면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사람이 현상 세계에 있는 기간은 영혼이 육체를 얻은 기간이므로 축복의 기간이며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다. 희로애락은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

현상 세계에서 모습이 다를 뿐 나와 이웃은 동일한 생명체다. 마치 나무의 잎과 뿌리와 같은 관계다. 사람의 영혼은 사람은 물론 나무나 새로도 윤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지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삼신 사상에는 유교·불교·신선 사상의 세 가지 종교 이론이 모두 결합되어 있다.

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삼신에게 감사드렸고, 사람이 늙어 죽으면 삼신을 통해 하늘로 돌아갔다고 믿었다. 사람이 죽은 집에서는 삼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을 데리고 가는 먼 길을 편안하게 배웅하기 위해서 밥 세 그릇과 신발 세 개를 문 밖에 두어 공양했다.

삼신은 이렇듯 생명체를 이루고 분해하는 조화의 힘을 갖고 있다. 삼신의 상징은 삼태극(三太極)이다. 삼태극 문양은 신라 시대에 왕가에서 사용하던 보검에도 새겨져 있으며, 조선 시대 왕릉 입구에 있는 홍살문에도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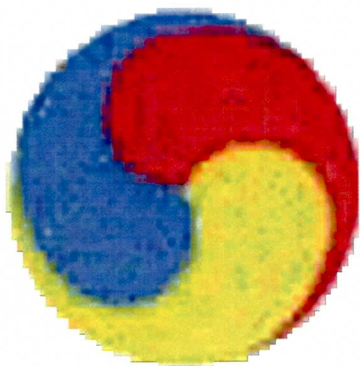


그림 3 삼태극

한국의 각종 고 건축물, 특히 연못 형태에는 대부분 삼신 사상이 표현되어 있다. 경복궁 경회루, 남원 광한루, 경주 안압지 등에 조성된 연못 내부에는 세 개의 인공 섬이 만들어져 있다. 이 숫자는 삼신을 뜻한다. 그리고 이들 섬에는 봉래산·방장산·영주산이라고 하여 삼신산의 이름을 붙여 놓

있다. 이는 신선 사상과도 관련된다.

경회루는 경복궁 내부에서 가장 큰 건물 가운데 하나다. 건물의 구성 기법을 보면 삼신 사상이 잘 담겨져 있다. 연못 위에 섬을 세 개 만들고 그 섬 위에 높이 누(樓)를 올린 것은 삼신 사상에서 비롯한 것이다.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은 태일(太一), 작은 섬 두 개는 천일(天一)과 지일(地一)을 뜻한다. 경회루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돌다리를 세 개 건너 가게 되어 있는데, 이는 삼신이 출입하려면 길이 세 개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삼신 사상이 나타난 또 하나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마니산 참성단을 들 수 있다. 참성단 성곽에는 세 곳에 개구부(開口部)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바로 삼신이 출입하는 곳이다. 참성단은 4500년 전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제(五帝)는 하느님의 작용을 도와주는 다섯 신이다. 이 신들은 각각 다른 기능을 갖고 있으며, 동·서·남·북·중앙이라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 서로 떨어져 있다. 또한 각각 고유한 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 색깔, 곧 오색(五色)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은 파란 옷을 입고 있어 청제(靑帝)라고도 하며, 여러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청제는 목성에 위치하고 있다. 동녘의 신 청제는 동쪽의 기운처럼 태양이 솟아오를 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생명력을 갖고 탄생하게 한다. 봄에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크게 자라는 것이 바로 동제의 대표 기능이다.

남쪽에 있는 신은 언제나 붉은 옷을 입고 있어서 주제(朱帝) 또는 적제(赤帝)라고도 한다. 뜨거운 태양처럼 청제가 만들어 좋은 기운을 확산시켜 널리 뿌리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화성에 위치하고 있다.

하늘 서쪽에 위치하면서 하느님의 힘을 대신하는 신을 언제나 하얀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백제(百帝)라고 한다. 백제는 주제(朱帝)가 번성시킨 생명체의 확산 기운을 정지시키며, 다음을 위해 쉬게 해서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금성에 위치한다.

하늘 북쪽에 위치한 신을 현제(玄帝)라고 한다. 언제나 검은 옷을 입

고 있다. 현재는 백제가 죽인 생명체를 편안히 휴식하게 하는 신이다. 그 기간은 다음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수성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에 있는 신이 황제(黃帝)다. 황제는 동서남북의 중앙에 위치하며 노란 옷을 입고 있다. 황제의 기운은 사방의 기운을 종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넷 보다 가장 중심적인 기운이다. 토성에 위치한다.<sup>6)</sup>

### 3) 음양오행 사상

풍수지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며, 음양오행 이론은 다음과 같다.

#### (1) 음양오행설의 발생

음양오행 사상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양 철학의 기본 이론이다. 한의학이나 사주·침술·관상 등 각종 동양 철학들이 대부분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풍수지리 역시 이러한 음양오행 사상에 근원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음양오행 사상은 음양설(陰陽說)과 오행설(五行說)은 초기에 각각 따로 발생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이론이 서로 이론적으로 결합해서 더욱 완벽한 철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음양설과 오행설이 서로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철학이 모두 자연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이론에서 출발한다는 공통점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점으로 두 이론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음양설과 오행설이 동일한 이론으로 알려질 정도가 되었다.

음양설이나 오행설의 핵심 개념은 기(氣)다. 기는 자연에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된 기가 모이면 생명체를 이루고, 생명체가 죽으면 다시 기로 분산된다. 기가 모이는 과정에서 사람 형태로 모이면 사람이 되고, 나무 형태로 모이면 나무가 되며, 짐승 형태로 모이면 짐승이 된다. 기에는 양기와 음기가 있다. 양기는 하늘에서 발생하는 기를 말하며, 음기는 땅에서 발생하는 기를 말한다. 양기와 음기가 결합

6)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p41-45

되면 하나의 생명체로서 작용한다.

오행 사상의 근원은 천문 사상(天文思想)과 오제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옛 사람들은 사람의 생활이 모두 하늘의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었다. 별이 사람의 운명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도 생각했다. 점성술이 그 중 하나이며, 음양오행 이론도 이러한 천문 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달력의 일주일은 신기하게도 음양오행 사상과도 일치한다. 음양오행에서 양과 음은 크게 해와 달의 기운으로 구분되는데, 해는 뜨거워서 양의 기운으로, 달은 차가워서 음의 기운으로 상징된다. 그래서 해와 달은 음양의 대표적인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

태양이 있으면 밝고, 태양이 없이 달이 뜰 때는 캄캄하다. 태양과 달은 밝고 어두움, 곧 음양의 기준이 된다. 한 주일의 첫째 날은 일요일이고, 이는 태양이다. 둘째 날은 월요일, 이는 달을 의미한다. 그 다음 화·수·목·금·토는 각각 화성·수성·목성·금성·토성의 다섯 개 별을 나타낸다. 일주일을 구성하는 일(日)부터 토(土)까지는 하늘에 있는 일곱 개 별의 이름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일곱 개 별을 일주일의 지표로 사용하게 된 것은, 고대인들이 하늘의 변화에 따라 삶이 좌우된다고 믿고 별에 제사를 지낸 데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제사의 대상은 날마다 바뀌었는데, 첫째 날은 태양에 대하여, 둘째 날은 달에 대하여, 다음으로 화성·수성·목성·금성·토성 순서로 제사를 지내다가 일곱 날이 지나면 다시 태양부터 그 순서를 반복했다고 한다.

## (2) 오행의 기운

오행이란 수(水)·화(火)·목(木)·금(金)·토(土)의 다섯 가지 기운이다.

수(水)는 물처럼 아래로 내려가려는 기운이다. 모든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려는 성질을 갖는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중력이라고 하며, 오행 가운데 물의 성질에 해당한다.

물은 마치 겨울의 기운과 같다. 겨울에는 온도가 아래로 내려가고 생명체는 활동력이 거의 정지된다. 이는 다음 기간까지 생명력이 준비를

갖추는 것을 뜻한다.

목(木)은 나무와 같이 수직 상승하는 기운을 말한다. 하늘로 올라가려는 성질이다. 목의 기운은 물리학상 원심력에 해당한다. 목은 사계절 가운데 봄에 해당한다. 봄에는 모든 생명체가 희망차게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다. 솟아오르는 생명력이 바로 목에 해당한다.

화(火)의 기운은 불꽃과 같이 사방팔방으로 확산되어 폭발하는 힘을 말한다. 불은 힘이 격렬하게 분출되는 것을 뜻하며, 태양열 같은 성질이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열에너지가 이에 해당된다. 불에 해당하는 계절은 여름이다. 여름에 나무가 무성해지고 꽃이 만발하는 것도 그 힘을 확산하려는 현상이다.

| 오행   | 방위 | 수     | 계절  | 색   | 사신사 |
|------|----|-------|-----|-----|-----|
| 수(水) | 북  | 1, 6  | 겨울  | 검은색 | 현무  |
| 화(火) | 남  | 2, 7  | 여름  | 붉은색 | 주작  |
| 목(木) | 동  | 3, 8  | 봄   | 푸른색 | 청룡  |
| 금(金) | 서  | 4, 9  | 가을  | 흰색  | 백호  |
| 토(土) | 중앙 | 5, 10 | 변절기 | 노란색 | 사람  |

표 1 오행과 방위의 관계

금(金)은 수축하려고 하는 힘을 갖고 있어 가을이 되면 모든 물체는 쌀쌀한 기운 때문에 움츠러든다. 중심점으로 향해 움츠러드는 현상이 금(金)이다. 현대 물리학에서 구심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은 가을의 기운에 해당한다.

토(土)는 수·화·목·금의 기운을 끌고루 갖고 있는 기운이다. 토는 균형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서로 다른 제 기운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포용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마치 흙이 모든 생명체를 포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 토는 한 계절에서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중간쯤을 의미한다.

### (3) 오행의 상생과 상극

다섯 기운은 각각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기운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관계는 상생과 상극으로 나뉜다.

상생(相生)이란 한 기운이 다른 기운을 북돋아 주고 만들어 주는 것

을 일컫는다.

물은 나무가 살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물과 나무는 서로 좋아하는 관계다. 이를 수생목(水生木)이라고 한다. 나무가 있으면 쉽게 불을 만들 수 있다. 곧 불은 나무를 통해 생명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나무와 불은 서로 돕는 관계다. 이를 목생화(木生火)라고 한다. 불이 타고 나면 흙으로 돌아간다. 재와 같은 흙은 불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흙과 불은 서로 조화하는 관계다. 이것을 화생토(火生土)라고 한다. 흙속에서 단단한 쇠가 이루어진다. 곧 쇠는 흙에서 그 기운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쇠와 흙은 서로 좋아하는 관계며, 이것을 토생금(土生金)이라고 표현한다. 쇠와 물의 관계를 보면, 금속 표면에는 물방울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렇게 단단하고 차가운 물질에서는 기운이 수축해서 물이 생기는 만큼, 금속과 물은 서로 조화하는 관계다. 이 관계를 금生水(金生水)라고 표현한다.

정리하면, 물은 쇠 기운에서 생겨나고 나무에 기운을 전달한다. 그러므로 물은 쇠와 친하고 나무와도 친하다. 나무는 물에서 그 기운이 형성되고, 자신의 기운은 불의 기운을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나무는 물과 불의 기운과 잘 어울린다. 불은 나무에서 기운이 형성되고, 자신의 기운은 흙의 기운을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불은 나무나 흙과 친하다. 금(金)은 흙에서 기운이 형성되고, 자신의 기운으로 물의 기운을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금은 흙 기운, 물 기운과 친하다.

한편 오행 각각의 기운은 서로 싫어하는 기운이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상극(相剋)이라 한다.

불의 기운은 물을 통해 억제된다. 불이 아무리 강해도 물한테는 이길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수극화(水剋火)라고 한다. 쇠는 매우 강하지만, 뜨거운 불에 달구어지면 무력해진다. 이러한 현상을 화극금(火剋金)이라고 한다. 나무의 기운은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려는 기운이지만, 도끼의 쇠와 같이 강한 기운으로 잘려진다. 이러한 현상을 금극목(金剋木)이라고 한다. 흙의 기운은 모든 기운으로 뭉쳐져서 정지하려는 성질이 크다. 이에 비해서 나무는 흙에서 솟아오르려는 기운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목극토(木剋土)라고 한다. 물은 쉬지 않고 흐르려 하지만



이런 물의 기운도 제방을 쌓으면 그 흐름이 정지된다. 곧 물의 기운은 흙의 기운으로 억제된다. 이러한 관계를 토극수(土剋水)라 한다.<sup>7)</sup>

#### 4) 동기감응(同氣感應)

산소 자리가 좋고 나쁘고 하는 차이가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sup>8)</sup>

이에 대한 해석은 동기감응(同氣感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조상의 시신이 땅속에서 발산하는 기운이, 같은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후손에게 전달되어 영향을 주는 과정을 동기감응이라 하며, 조상의 혈장의 특성이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진다. 즉 좋은 곳에 조상을 모시면 후손에게 좋은 땅의 기운이 전해지고, 나쁜 곳에 모시면 나쁜 영향을 받는다.<sup>9)</sup> 이는 묘 터마다 작용하는 특성과 그 응기(應器)하는 기운의 특성이 다르므로 혈심의 유골(遺骨)에 응축되는 기운의 특성도 다르다. 이렇기 때문에 혈심에 흐르는 기운의 특성대로 그 자손들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특성적으로 태어나고 또한 특성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뒷자리의 조건 중 어느 한 부분에 결함의 특성이 있으면 결함의 특성이 있는 그대로, 양호한 특성이 있으면 양호한 특성이 있는 그대로 그 자손은 그 특성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현무·청룡·백호·주작의 사신사(四神砂)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혈장 자체의 구성 요건이다. 혈장의 입수·청룡선익·백호선익·전순은 혈장의 이목구비(耳目口鼻)이므로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 혈장은 그러한 결함만큼 불구인 것이며, 또한 그러한 결함의 특성이 자손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혈장의 이목구비가 균형적으로 갖추어짐으로써 혈심인 중앙토(中央土)에 수·목·금·화의 합성에너지가 균형적으로

7)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p41-52

8)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171

9)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171

응축된 토기(土氣)가 생성(生成)되어, 그 곳에 안장된 조상의 유골이 그 자손에게 그와 같이 균형잡힌 양호한 종성인자와 생명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신사(四神砂)인 현무·청룡·백호·주작 역시 혈장의 구비조건인 입수·청룡선익·백호선익·전순 등과 같은 원리로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사신사의 진가도 면밀하게 관찰해야만 한다.

|   | 명 칭                    | 위 치                 | 역할                                  | 기의 종류 | 자손에게 영향을 주관(主管)하는 분야                    |                          |                            |            |
|---|------------------------|---------------------|-------------------------------------|-------|-----------------------------------------|--------------------------|----------------------------|------------|
| ① | 입수<br>(入首)             | 묘의 바로 뒤(위) 쪽 부분     | 산맥(山脈) 에너지의 연결통로와 기의 보관처            | 水氣    | 모든 남자자손의 건강과 수명에 해당되지만 특히 장손이 영향을 많이 받음 | 콩팥<br>(腎腸)<br>방광<br>(膀胱) | 지<br>(智)<br><br>지혜<br>(智慧) | 명예<br>(名譽) |
| ② | 청룡<br>선익<br>(靑龍<br>蟬翼) | 입수로부터 묘의 왼쪽 바로 앞부분  | 입수로부터 묘의 왼쪽, 즉 청룡 쪽 에너지 보호 장치       | 木氣    | 모든 남자 자손에게 해당되지만 주로 홀수 자손에게 영향이 큼       | 간장<br>(肝腸)<br>쓸개<br>(膽膀) | 인<br>(仁)<br><br>덕<br>(德)   | 관운<br>(官運) |
| ③ | 백호<br>선익<br>(白虎<br>蟬翼) | 입수로부터 묘의 오른쪽 바로 앞부분 | 입수로부터 묘의 오른쪽, 즉 백호 쪽 에너지 보호 장치      | 金氣    | 며느리, 딸 등 모든 여자에게 해당되고 남자의 짝수 자손에 영향이 큼  | 폐<br>(肺)<br>대장<br>(大腸)   | 의<br>(義)<br><br>정의<br>(正義) | 재운<br>(財運) |
| ④ | 전순<br>(前唇)             | 묘의 바로 앞부분           | 묘의 바로 앞에서 에너지 보호 장치                 | 火氣    | 모든 자손에게 해당되지만 특히 끝 자손에 영향이 큼            | 심장<br>(心腸)<br>소장<br>(小腸) | 예<br>(禮)<br><br>공경<br>(恭敬) | 재물<br>(財物) |
| ⑤ | 혈심<br>(穴心)             | 혈장의 중심으로서 사신이 묻히는 곳 | 사신을 안장하는 곳. 으로 합성에너지가 응축된 핵과(核果)이다. |       | 전체 자손에게 해당됨                             | 위장<br>(胃腸)<br>지라<br>(脾腸) | 신<br>(信)<br><br>신뢰<br>(信賴) | 의지<br>(意志) |

표 2 혈장 조건별 역할 현황

## 제 2 절 풍수지리의 이론적 기초

### 1. 명당을 만들어주는 풍수지리의 5대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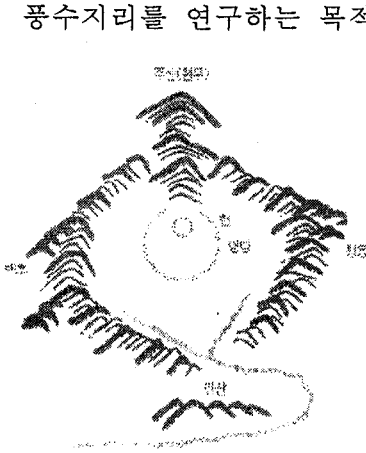


그림 4 명당도

풍수지리를 연구하는 목적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존재하는 우리 인간들이 대자연속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연환경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려고 자연의 변역과 변화하는 질서를 탐구하는 데에 있다. 즉 명당(明堂)을 찾는 것을 말하며 명당(明堂)이란 무엇이나? 명당은 지역적으로 고기압(高氣壓)권역인 지형지세를 말한다. 명당은 공기의 밀도가 높은 곳을 말하며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은 절대로 명당이 될 수 없다.

산세의 지형에서 명당의 모양은 여성의 생식기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를 혈(穴)이라고 한다. 혈(穴)이란 용맥중 음양이 합국 되고 산수의 정기가 결합된 곳을 말한다.<sup>10)</sup> 명당은 바람을 막아주고 태양의 반사가 이루어져 따뜻해지며, 청룡 백호 안산에서도 혈을 향하여 반사방향이 이루어져 밝고 따뜻한 지역을 만들어주게 된다. 그래서 밝을 명(明)자를 사용하여 명당이라고 한다.

이러한 명당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는데 주체가 되는 주인(主因)이 있고 보조적 역할을 하는 연분(緣分)들이 있다. 그 주인(主因)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땅기운 즉 지기(地氣)이다. 이 지기(地氣)에 화기(火氣)인 태양에너지가 작용하여 바람(風)과 물(水)이 발생하고 땅에는 연분적 작용을 하여 지기(地氣)를 보호·육성하며 또한 지상(地上)의 자연생명에너지도 생성순환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기운(氣運)의 주체(主體)인 땅(地)과 태양(火), 바람(風), 물(水)의 연분과 용맥(龍脈)의 흐름선(線), 즉 좌향(坐向)을 보조적 연분으로 포함시켜서 풍수지리의 5대 요소(五大要素)라고 한다.

10) 최창조, 한국의 풍수지리, 민음사, 서울1984, p56

### 1) 지기(地氣)

땅은 그 연분들인 태양과 바람, 물 등의 작용을 받아 그 기를 생성(生成), 유지(維持), 저장(貯藏)하고 또한 이동(移動)시키고 땅을 모체(母體)로 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 지기(地氣)를 적절히 공급하는 역할을 스스로 하고 있어 모든 연분들로부터 받은 기운을 지기(地氣)로 순화시켜 저장하고 공급하고 이동시키는 주체이며 땅이 그 근본체이기 때문에 풍수지리 원리 중 그 주인(主因)이 된다. 그러므로 태양, 바람, 물의 방향성 등은 주체인 땅에 보조적 작용을 함으로써 땅에 대한 연분들이다.

### 2) 화기(火氣)

화기(火氣)는 땅인 지구자체의 핵(核)을 지니고 있으면서 분출과 순환작용을 하고 지구표면에 나타나는 땅 자체의 화기(火氣)도 있지만 연분으로써 지구표면 즉 땅에 작용하는 주발현체(主發顯體)는 태양이다. 이 태양에서 발생되는 화기(火氣)는 지구표면에 작용하여 땅에 온화한 기운을 전달하여 지기(地氣)를 생성시키며 보온(保溫)해 주고, 지구에 4계절의 변화를 주어 지구세(地球勢)에 변화를 갖게 하여 일정한 순환기간을 두고 있다.

### 3) 바람(風)

바람은 태양, 땅, 물 등의 변화와 조화로써 발현(發顯)한다. 바람이 공기(空氣)를 이동(移動)시켜서 지구표면인 땅에 적절히 순환 및 조절 작용을 하게 되면 땅에는 생기적동조작용(生起的同調作用)을 하며 땅을 생육(生育), 보완(補完), 취융(聚融) 보호(保護), 운반(運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4) 수기(水氣)

수기(水氣)가 태과(太過)하여 땅에 형(刑), 충(沖), 파(破), 해(害), 살(殺)의 사멸적 간섭작용을 하게 되면 지기(地氣)는 설기(泄氣)되거나 파괴(破壞)된다. 또한 수기(水氣)가 부족(不足)하면 땅은 메말라서 지기(地氣)는 산기(散氣)가 되고 땅은 파괴된다. 물은 공기에도 작용하여 그 태과(太過)나 불급(不及)에 따라 공기 중에 균형이 무너져서 우리 인체에 직접적인 간섭작용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물은 양면성을 지닌 연분적(緣分的)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선악(善惡)의 성정(性情)을 잘 파악해야 한다.

#### 5) 방위(方位)

방위란 양택 또는 음택의 좌향(坐向)을 말하며 양택 또는 음택이 어느 위치에서(座)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向)의 방향성(方向性)을 말한다. 우리 국토산세지형에서는 좌향을 결정할 때 지세지형(地勢地形)에 맞추는 것이 원칙이며 순리(順理)다. 바로 배산임수(背山臨水) 배치다.<sup>11)</sup> 그러나 남향집이 좋다고 하여 비탈진 산을 쳐다보고서라도 남쪽을 향하여 집을 짓는 것은 우리 국토산세지형의 특성에 역행(逆行)하는 것이므로 안정된 지기(地氣)를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음택에서의 좌향은 산맥의 변역과 안산 및 주변 보호사들의 응축에 의하여 혈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미 좌(坐)와 향(向)이 결정되어진 것이다. 즉 이미 결정된 산맥의 흐름선(線)인 입혈맥(入穴脈) 특성선(特性線)이 좌(坐)가 되고 입혈맥 특성선의 정면180° 방향에 있는 안산(案山)이 향(向)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방위인 좌향은 자연의 질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우리는 지형지세를 살펴볼 수 있는 지해로 실체를 찾아서 자연의 질서와 본질에 맞도록 실행하는 것 이외는 더 이상의 최선이 없다.

---

11)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184

## 2. 용(龍)과 변역(變易)



그림 5 용맥

혈(穴)을 찾을 수 있고, 지세의 기운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용과 용맥의 기본적인 변역질서(變易秩序)와 명당(明堂)의 형성원리는 다음과 같다.

### 1) 변역질서(變易秩序)의 이해

산과 산이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국토의 산(山)들은 가지가 나뉘고 연이어져 길게 뻗어 나가면서 한 줄기를 이루고 있다. 산의 이러한 형태를 산맥(山脈)이라고 하고 풍수 지리적 용어(用語)로서는 용맥(龍脈)이라고 한다.

용맥이 좌우로 또는 높낮이를 바꾸면서 길게 뻗어 진행을 하거나 가지가 나뉘는 것을 분벽(分擘)이라하고 이 분벽(分擘)이 진행을 멈추거나 하는 것을 용맥의 변역(變易)이라고 한다. 이러한 용맥의 변역은 자연의 질서(秩序: 法則) 속에서 행해지고 있고 모두 자연의 질서 속에서 변화, 변역하며 존재하고 있지만, 질서를 유지하면서 변역하는가 하면 그 질서를 유지 못하는 존재도 있다.

용맥(龍脈)도 자연의 질서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변역질서를 유지하는 용맥(生龍脈)도 있고 유지하지 못하는 용맥(死龍脈)도 있으므로 변역질서를 유지하면서 변역하는 용맥은 양호한 생명에너지가 있는 생룡(生龍)이 되고 그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 용맥은 생명력이 없

12)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106

는 무기룡(無記龍), 병룡(病龍), 사룡(死龍)이 되고 만다. 그러나 용맥(龍脈)은 생룡이 병룡으로 되었다가 사룡이 되고 또 무기룡이 되고 다시 생룡이 되면서 생멸(生滅)을 되풀이 하고 있다.

## 2) 오행산(五行山).

산의 그 모습에 따라 수산(水山), 목산(木山), 화산(火山), 토산(土山), 금산(金山)의 다섯 가지 성정(性情)으로 분류한다.

### (1) 수산(水山)



그림 6 수산

수산은 산 정상부에 봉우리 여러 개가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어 마치 물결이 굽이치는 듯한 형태를 말한다.<sup>13)</sup> 이는 산이 연이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물결이 흘러가는 것처럼 모습을 하고 있으며 수형산 또는 수체(水體)라고도 한다. 이 수형산은 주로 예재(藝才)를 주관한다.

또한 보호사(保護砂)나 안대사(案帶砂) 역할을 많이 한다.

### (2) 목산(木山)



그림 7 목산

목산은 정상부에서 꽃봉오리 모양을 이룬 산을 말하며, 수직상승하는 기운이 많은 산이다.<sup>14)</sup> 목산(木山) 중에서도 산 정상부가 마치 붓끝 같은 뾰족한 산을 문필봉(文筆峰)이라 한다. 목형산을 목체(木體)라고도하며 주로 귀(貴)를 주관한다.

13)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76

14)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74



### (3) 화산(火山)



그림 8 화산

화산은 산의 정상부가 두 개 이상의 뾰족한 봉우리를 이루면서 나무가 불에 탈 때 나타나는 불꽃의 형태를 닮은 산을 말한다.<sup>15)</sup> 산봉우리의 끝이 타오르는 불꽃같다고 해서 화형산 또는 화체(火體)라고도 한다. 화산이 있는 지세에서는 종교인이나 예술가가 배출된다.

### (4) 토산(土山)



그림 9 토산

토산은 산의 정상부가 평탄하게 수평으로 펼쳐진 것을 말하는데, 산의 모습이 측면에서 보면 일자(一字)와 같이 보이므로 일자문성(一字文星)이라고도 부른다.<sup>16)</sup> 토산을 영상사(領相砂)라고하며 토체형은 부귀(富貴)를 주관하며 크고 풍만할수록 부귀가 크다.

### (5) 금산(金山)



그림 10 금산

산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을 하고 있어서 마치 바가지를 엮어 놓은 듯한 산을 금산(金山)이라고 한다.<sup>17)</sup> 금산은 금형산 또는 금체(金體)라고 하며 재물이나 곡식을 쌓아놓은 모습 같다고 하여 부봉사(富峯砂)라고 하며 부귀(富貴)를 주관한다.

15)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75

16)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76

17)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76



### 3) 조종산(祖宗山)과 내룡맥(來龍脈)

우리 국토 산세지형은 혈장(穴場)이 형성되기 위하여 용맥이 출맥(出脈)한 근원(根源)이 되는 산 즉 혈장의 근원이 되는 산으로부터 용맥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우리 국토 산세지형의 특성이다. 그러므로 혈장의 근원이 되는 태조산(太祖山)과 태조산과 소조산의 중간지점에 산의 기(氣)가 특출하게 취기(聚氣)된 중조산(中祖山)과 중조산과 입수두뇌의 중간지점에 취기(聚氣)된 소조산(小祖山+玄武)을 합쳐서 조종산(祖宗山)이라고 하고, 중조산과 소조산인 현무(玄武)는 혈장에 기(氣)를 공급하기 위한 중간 기(氣)의 저장창고라 할 수 있으며, 크고 수려할수록 좋다. 특히 현무인 소조산은 조종산들 중에 혈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산이므로 크고 수려할수록 좋으며 혈장에서 가까이 있을수록 좋고 입수로부터 3절 에서 5절 이내에 있어야 하며 혈장을 향하여 산정(山頂)을 드리우고(수두:垂頭)있어야 한다.

내룡맥(來龍脈)은 태조산으로 부터 출맥한 용맥이 중조산과 소조산을 거쳐서 입수 직전까지의 용맥을 내룡맥 이라고 한다. 혈장을 형성하기 위한 용맥이므로 본신룡맥(本身龍脈)이라고도 하며 태조산에서 혈장까지 기(氣)를 이동시켜 주는 전선(電線)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내룡맥은 변역질서를 지켜야 양호한 기(氣)를 이동시킬 수가 있으며 단절되거나 파손된 곳이 없어야 한다.

### 4) 용맥의 출맥(出脈)질서

용맥이 조종산(祖宗山)인 태조산, 중조산, 소조산이나 취기(聚氣)된 산에서 출맥을 하여 진행을 할 때 질서와 격식(格式)을 취하게 되며, 이때 용맥의 출맥이 산의 상부(上部)인 산정(山頂)에서 출맥하는 천맥(天脈)과 산의 중부(中部)인 허리에서 출맥하는 인맥(人脈)과 산의 하부(下部) 즉 다리아래(脚下)서 출맥하는 지맥(地脈)의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출맥할 때의 용맥의 역량은 천, 인, 지맥(天, 人, 地脈)의 순서이지만 출맥한 용맥이 변역(變易)을 거듭함으로써 혈장을 형성할 때 까지는 많은 차이가 있게 된다. 용맥의 출맥이 조종산이나 또는 취기된 산의 중앙(中央)에서 출맥한 중출맥(中出脈=開張穿心脈)의 경우와 좌측에서 출맥한 좌출맥(左出脈)의 경우와 우측에서 출맥한 우출맥(右出脈)

의 경우 이 세 종류의 출맥질서중 용맥의 역량은 개장천심맥인 중출맥을 크게 평가하지만 역시 혈장을 형성할 때까지 호종사(護從砂)들의 응기응축상황과 용맥의 번역에 의하여 그 역량의 변화가 많게 된다.

##### 5) 국(局)

우리 국토 산세지형의 기운(氣運)은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백두대간을 타고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산이 360° 전 방위를 에워싸고 그 안에 국(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국내(局內)에 집합(集合)되고 안정(安定)된 기(氣)는 균형(均衡)을 유지하게 되어 모든 생명체의 기능과 활동을 극대화(極大化)시키게 되는 것이다. 즉 국(局)의 안쪽과 바깥쪽의 길흉(吉凶)의 차가 크게 나는 것도 우리 국토 산세지형의 특성이며 국(局) 안쪽(산의 앞면)의 국세를 장풍국(藏風局)이라고 하는데 직사풍(直射風)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택이든 양택이든 바람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이 국장(局場)의 크고 작음을 구별하여 아주 넓은곳은 대취국(大聚局), 중소도시를 형성할 정도의 중취국(中聚局)과 아주 작은 마을이 형성되거나 음택지가 형성되는 소취국(小聚局)의 삼취국(三聚局)이 있다.

##### 6) 산은 앞면(面)과 뒷면(背)이 있다.



그림 11 산의 앞

사람은 앞과 뒤가 서로 달라 얼굴이 있는 앞면은 색이 밝고 광채가 있으나 머리가 있는 뒷면은 색이 어둡다.<sup>18)</sup> 국(局)의 안쪽은 용맥의 앞면이 되고 바깥 쪽은 용맥의 뒷면이 되며, 용맥의 앞면은 에너지 응기(應氣) 또는 응축(凝縮)의 구심점(球心點)이 생겨 자연의 기(氣)가 집합하지만 뒷면은 에너지 응사각(應射角)이 사면팔방으로 되어 자연의 기(氣)가 흩어져 버린다. 그러므로 용맥의 앞면과 뒷면을 잘 구별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18)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68

## 7) 혈장의 생성원리(生成原理)

용맥이 혈장을 형성하기 까지는 태조산에서 출맥한 용맥이 중간에너지 취기점인 중조산(中祖山)과 현무(玄武)를 형성하면서 진행해오는 과정이 반드시 분벽질서와 오면역질서 속에서 진행해온 생룡맥이라야 한다. 이와 같은 생룡맥이 청룡과 백호의 보호와 응기(應氣)를 받아 더욱 양호한 용맥으로 유지(維持) 또는 생육(生育)되어 변역진행(變易進行)하다가 청룡백호의 응축(凝縮)과 안산(案山)의 응축작용(凝縮作用)을 받게 되면 진행하던 용맥이 안정을 찾아 멈추고 비로소 혈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혈장이 형성될 때 현무로부터 진행해 온 용맥과 안산의 종응축력(從凝縮力), 청룡과 백호의 횡응축력(橫凝縮力)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원만상의 혈장으로 형성된다. 이 원만상의 혈장이야말로 에너지의 핵(核)으로써 최상의 이상적 혈장이며 명당이 되는 자리이다.

그러나 만약 종응축(전후)보다 횡응축(좌우)이 강하면 좌우가 좁고 전후가 길게 혈장이 형성 되고, 반대로 횡응축보다 종응축이 강하면 전후가 짧고 좌우가 넓은 혈장이 형성됨으로써 전후 또는 좌우의 결함 있는 혈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청룡, 백호, 안산의 응축에 비하여 내룡맥이 허약하면 입수두뇌가 허약하게 되고, 내룡맥과 백호와 안산의 응축이 청룡의 응축력보다 불급이면 혈장의 청룡선익쪽이 허약하거나 결함이 있게 된다. 또한 내룡맥과 청룡과 안산의 응축에 비하여 백호의 응축력이 불급이면 혈장의 백호선익쪽이 허약하거나 결함이 있게 되고, 내룡맥과 청룡과 백호의 응축보다 안산 에너지의 응축력이 불급이면 혈장의 전순이 허약하거나 결함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완벽한 혈장 즉 원만상의 혈장이 형성되기 위하여서는 혈장의 360° 전 방향의 연분사(호종사)가 균형 있는 응축작용을 해야 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 3. 사신사(四神砂)

산의 좌우, 전후 사면에 있는 산을 사신사(四神砂)라고한다.<sup>19)</sup> 이를 풍수 용어로 풀이하면 혈장의 전후좌우(前後左右) 사방(四方)에 있는 현무, 주작, 청룡, 백호를 합쳐서 혈장을 수호(守護)하는 신(神)에 비유하여 사신사(四神砂)라고 일컫는다. 후현무(後玄武)는 혈장의 뒤에서 혈장에 기(氣)를 공급하고 전주작(前朱雀)은 혈장의 앞에서 혈장에 기(氣)를 응기 및 응축(應氣·凝縮)시키고, 좌청룡(左靑龍)은 혈장의 왼편에서 용맥과 혈장에 기(氣)를 응기 및 응축시키며, 우백호(右白虎)는 혈장의 오른편에서 용맥과 혈장에 기(氣)를 응기 및 응축시킨다. 동시에 이들 사신사들은 사방에서 혈장을 에워싸고 양호한 에너지장(場)을 형성하여 혈장으로 직사(直射) 및 직래(直萊)하는 바람과 물을 막아서 혈장을 보호한다. 이와 같이 사신사는 혈장 가까이에서 혈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진가(眞假)를 세밀히 살펴야 한다.

#### 1) 현무(玄武, 主山, 小祖山)



그림 12 서오릉 경릉의 현무

현무는 혈에 지기를 직접 전달하고 있어서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sup>20)</sup> 즉 혈장에서 가장 가까운 조종산으로써 혈장에 기(氣)를 공급해 주는 공급원(供給源)이다. 주로 혈장의 뒤쪽에 있으며 웅대(雄大)하고 수려(秀麗)할수록 좋다. 또한 혈장에서 가까울수록 좋고 3절 내지 5절 이내에 있어야 하며 반드시 혈장을 향하여 머리를 드리우고 (垂頭:수두) 있어야 한다. 현무는 혈장에서 그 거리가 멀수록 역량이 약하며 만약 현무가 수두(垂頭)하지 않고 뒤로 젖혀져 있다면 혈장에 무정(無情)한 현무가 되며 용맥의 단멸현상(斷滅現象)이 일어날 수 있다.

19)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137

20)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148

## 2) 주작(朱雀, 案山, 案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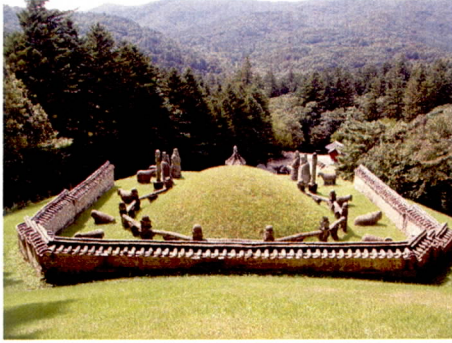


그림 13 입수, 혈, 주작

크기와 높이와 거리가 혈장과 균형이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주작은 하부, 곧 전순부터 멀리 있는 조산 사이에 있는 산을 모두 말한다.<sup>21)</sup> 즉 혈장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산을 말한다. 주작은 혈장을 보호하며 혈장에 기(氣)를 응기 응축하기에 혈장을 향하여 응기 및 응축각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혈장과 가까울수록 좋으나 그

## 3) 청룡(靑龍)

청룡은 본신룡(本身龍)과 혈장의 왼쪽에서 본신룡과 혈장을 보호하고 응기 및 응축하는 호종사(護從砂)다. 청룡은 혈장과 그 높이와 거리의 균형, 응기 및 응축 각도(角度)가 유지되어야 한다. 청룡은 힘차게 구불구불(蜿蜒=완연)한 것이 좋고 백호의 끝을 안아 싸면서 관쇄(關鎖)되면 더욱 좋다. 청룡은 현무(玄武) 이하 (혈장에서 3~5절 이내)에서 출맥해야 좋고, 혈장으로부터 가까운 절(節)에서 출맥(出脈)할수록 그 역량이 좋으며 여러 겹 있을수록 좋다. 혈장에 가장 가까운 청룡을 내청룡(內靑龍), 그 밖의 것은 외청룡(外靑龍)이라고 한다. 청룡에서 발생되는 생기는 대표적으로 자손 번창의 기운, 권력과 지도자의 기운, 재산의 기운을 갖고 있다.<sup>22)</sup>

## 4) 백호(白虎)

백호는 혈장의 오른쪽에서 본신룡과 혈장을 보호하고 기(氣)를 응기 응축하는 호종사다. 백호도 청룡과 같이 혈장과 그 높이와 거리의 균형 및 응기응축 각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백호는 자손들의 무귀(武貴=武

21)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146

22)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144





그림 14 경릉의 백호

官)와 재물운(財物運=事業運)을 주관하므로 그 유정 무정에 따른 변화가 많이 되고 혈장에서 가까운 절(節)에서 출맥 할수록 그 역량이 강하고 여러 겹일수록 좋다. 뒷면을 보이는 배반격인 경우에는 재물을 잃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sup>23)</sup>

##### 5) 청룡과 백호의 관쇄(關鎖), 충(沖), 상부(相符)

청룡과 백호의 용맥의 흐름이 혈장에 끼치는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관쇄(합금이라 고도한다.)와 충, 상부에 대해서 알아본다.

###### (1) 청룡과 백호의 관쇄(關鎖)

청룡과 백호가 혈장 앞을 감아 싸면서 대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듯이 용호의 끝이 겹쳐져 있는 상태를 관쇄(關鎖)라고 한다. 용호의 완벽한



그림 15 광릉의 관쇄

관쇄는 혈장이 품고 있는 기(氣)를 완벽하게 응축시킨다. 또한 용호의 물이 유정하게 만나서 혈장에 수기(水氣)를 조운(調潤)시키고 앞쪽에서 들어오는 골바람(峽谷風)을 막아 혈장의 전순을 보호하고 또한 수구(水口)로부터 들어오는 바람이 부드러운 바람이 되어

혈장에 공기를 순환조절하며 관쇄는 여러 겹일수록 좋고 청룡과 백호가 짧아서 관쇄가 되지 못할 때는 주작(朱雀)이 가까이에 있어서 유정하게 관쇄되어도 차선(次善)은 된다.

23)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146

## (2) 용호(龍虎)의 충(沖)

관쇄는 되었으면서도 청룡의 끝부분이 백호를 치고 찢어서 백호의 충 받은 부분이 상처가 나고 무너진 상태를 말하며, 백호의 끝이 청룡의 지룡(止龍)이 끝나기 전 절(節) 중간을 충(沖)한 상태를 말한다.

## (3) 용호(龍虎)의 상부(相符)

청룡과 백호가 관쇄되지 못하고 서로 맞붙어 있거나 상당한 거리를 진행해 간다. 용호(龍虎)가 상부(相符)되면 상부된 협곡(峽谷)으로부터 자생 수구풍(白生水口風)이 발생하여 혈장의 전순을 쳐서 무너뜨리며 혈장의 기(氣)를 설기(泄氣)시킨다.

## 6) 혈장의 네 가지 구비조건

용맥의 번역질서에 의하여 형성된 혈장에는 필수적인 구비조건과 이 필수적 구비조건을 보호하고 보조하는 부속장치들이 있다. 즉 입수두뇌, 청룡선익, 백호선익, 전순 이 네 가지는 혈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조건으로써 혈심(穴心)을 직접 에워싸고 보호하며 혈심에 기(氣)를 직접 공급, 응축(供給, 凝縮)시키는 역할을 한다.

### (1) 입수두뇌(入首頭腦)



그림 16 입수두뇌

입수와 두뇌는 그 부분, 모양, 역할이 다르다. 입수는 사람의 신체와 비교하면 사람의 몸과 머리를 이어주는 목에 해당되며 용맥을 타고 흐르는 기(氣)를 두뇌에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입수와 두뇌는 동일한 일절(一節)을 이루고 있어 입수두뇌라고 한다.

두뇌(頭腦)는 조종산(祖宗山)으로부터 번역해 온 용맥이 혈장을 형성하기 직전에 혈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용맥의 기를 취기(聚氣)한 곳으로써 혈장에 기(氣)를 공급하기 위한 산(山)에너지의 마지막 저장창고라 할 수 있으며 혈심과 혈장에 기(氣)를 직접 공급하는 곳이다. 상당한 크기의 둥그스름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암석(岩石)이

노출된 것도 있다. 그리고 혈심과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지만 입수두뇌 및 혈장의 대소(大小)와 두뇌에서 혈장까지 경사도(傾斜度)의 완급(緩急)에 따라서 다소 먼 것도 있다. 입수두뇌는 분벽 지룡맥에서만 생성되는 것이며 용맥의 부속장치들에서는 절대로 입수두뇌가 생성되지 않는다. 입수두뇌는 혈심에 수기공급원(水氣供給源)으로써 혈장의 생명원이며 동시에 자손들의 생명원(生命源)이다. 왜냐하면 혈장의 모든 부속장치들은 입수두뇌의 대소강약, 선약, 미추의 역량에 따라 생성(生成)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수두뇌의 역량은 용맥의 대소, 강약, 선약, 미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두뇌(頭腦)는 취기정돌(聚氣正突)하고, 균형원만(均衡圓滿)해야 한다.

## (2) 청룡선익(靑龍蟬翼), 백호선익(白虎蟬翼)

선익(蟬翼)은 혈관의 혈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그림 17 선익

말한다.<sup>24)</sup> “선익”이라는 말 자체는 매미날개를 뜻한다.<sup>25)</sup> 청룡선익과 백호선익의 기능은 청백의 고유 특성과 같이 나타나며 이 두선익은 두뇌의 좌우(左右)에서 각각 발생하여 왼쪽은 청룡선익이 되고 오른쪽은 백호선익이 된다. 이 두선익은 각각 혈심의 좌우에서 혈심을 감싸 보호하고 기(氣)를 공급응축(供給凝縮)시키는 역할을 하고 선익의 발생은 용맥이 혈장을 형성하고 마지막 안정을 취하는 분벽질서(分劈秩序)의 결과물이다. 청룡선익과 백호선익은 이러한 질서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설령 선익의 모습을 닮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익을 닮았을 뿐이며 질서 속에서 형성된 정상선익은 아니다. 선익은 용맥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혈에 영향을 주는 그 역량은 가장 강대(強大)하고 모양새는 약간 두툼하고 탄탄하며 석질(石質)로 된 것도 있으며 석질이 노출된 것도 있다. 좌우선익이 균형일수록 좋다.

24)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133

25)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133



### (3) 전순(纏脣)

전순은 입수 기운이 혈과 선익을 만든 뒤, 남은 기운이 혈 아래로 평탄하게 모여 있는 공간을 말한다.<sup>26)</sup> 즉 좌우에 있는 선익의 끝부분과 연결되어 혈장 앞부분을 감싸 보호하고 혈심에 기(氣)를 공급 및 응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순은 혈심에서 입수두뇌와 균형을 맞추어 가까울수록 좋다. 혈장의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혈심에서 7m 이내 또는 최장 10m 이내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혈장과구(穴場破口)를 형성하지 못한 혈처는 혈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그림 18 창릉의 전순

### 7) 혈장의 부속장치들

혈장의 네 가지 구비조건을 보호하고 보조하는 부속장치들이 있다. 즉 귀성(鬼星=鬼砂), 요성(曜星), 관성(官星)이 그것이다.

26)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134

(1) 귀성(鬼星=鬼砂)

입수두뇌(頭腦)의 뒤에서 발생하여 두뇌에 반(反)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두뇌를 보호하고 두뇌에 입수한 용맥의 진행각도를 변위시켜 입혈맥을 형성하고 또한 입혈맥에 기(氣)를 촉진시킨다. 특히 횡룡입수맥 혈장에는 귀성(鬼星)들이 혈장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2) 요성(曜星)

선익에 반(反)에너지를 공급하여 선익의 각도를 변위시켜 혈심을 감싸고 보호하게 하며 또한 선익을 보호하고 혈심에 기(氣)를 재응축(再凝縮)시키는 역할을 하고 요성은 긴 것과 짧은 것 암석이 노출된 것 등이 있다.

(3) 관성(官星)

관성은 전순에서 발생하며 전순을 보호하고 혈심에 에너지를 재 응축시키며, 긴 것, 짧은 것 암석이 노출된 것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혈장의 필수조건들이나 부속장치들은 혈심을 보호하고 혈심에 기운(氣運)을 응축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조건들이다.

혈장의 대소, 강약, 선악과 수명은 이들 조건들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지만 용맥과 호종사들의 대소, 강약, 선악에 의하여도 결정되기도 한다. 혈장이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어 완벽한 혈장이 되기 위해서는 입수(入首)하기까지의 용맥은 많은 절수(節數)가 배합생룡맥(配合生龍脈)으로 번역하여 진행해 와야 한다.

8) 혈(穴)의 구조와 종류

혈장이 형성되면 음혈(陰穴=一=ㄣ)과 양혈(陽穴=十=ㄚ)로 분류되고 다시 음혈(陰穴)인 와형혈(窩形穴)과 꺾형혈(鉗形穴) 그리고 양혈(陽穴)인 유형혈(乳形穴)과 돌형혈(突形穴)의 네 종류로 분류되며 이러한 네 가지 혈형(穴形)에는 특이한 증거를 갖추게 된다. 즉 양혈장(陽穴場)에는 그 중심에 유·돌(乳·突)을, 음혈장(陰穴場)의 중심에는 와(窩)의 증거를 갖추게 되고 즉 와혈과 꺾혈은 우묵한 소쿠리와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어 여성 생식기에 비유되고, 유혈과 돌혈은 솟아오른 형태를 이루고 있어 남성 생식기에 비유된다.<sup>27)</sup>

### (1) 와혈(窩穴)

와혈은 주룡에서 내려온 기운이 혈관에서 좌우로 각각 맥을 벌려 소쿠리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sup>28)</sup> 즉 와혈에는 기본적으로 청·백의 양선익이 혈장을 감싸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처럼 생겨 혈장을 완전히 감싸지 않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장구와형혈(藏口窩形穴)이



그림 19 신격호 증조모 묘소

있다. 와형혈장은 양선익이 둥글게 감아 싼 것이 분명해야 좋고, 혈장 내부가 오목하게 둥글고 깨끗해야 하며 혈장내부가 낮고 깨어진 말죽통 같거나 움푹하게 파여 함(陷)하거나 경사가 급하거나 하면 진혈(眞穴)이 아니다. 또는 어느 한편이

### (2) 검혈(鉗穴)

검혈은 주룡에서 내려온 기운이 혈관을 이루는 동시에 혈관 양쪽 끝에 받혀주는 맥을 갖고 있다.<sup>29)</sup> 즉 혈장의 양쪽 아래로 다리를 벌려 혈장을 받치고 있는 모습의 혈장으로써 개각혈(開脚穴) 또는 함곡혈(合曲穴)이라고도 한다. 검혈 혈장은 그 중심에 유(乳) 또는 와(窩)가 있으면 길(吉)하며 입수두뇌가 단정원만(端正圓滿)하고 반드시 전순이 튼튼해야 한다. 혈장의 경사가 급하면 불가(不可)하며 전순이 없으면 호구(虎口)다. 또한 검혈 혈장은 양다리 사이가 깊게 패여 있거나 검(鉗)다리가 역(逆)을 하면 사용불가(使用不可)다.

27)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128

28)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128

29)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128

### (3) 유혈(乳穴)



그림 20 신격호 부친묘소

진혈(眞穴)이다. 단유혈(短乳穴)과 장유혈(長乳穴)이 있으며, 두개가 나란히 붙은 쌍유혈(雙乳穴)도 있다.

### (4) 돌혈(突穴)



그림 21 밀양의 돌혈 전순

불쑥 솟아나서 형성된 혈장이다. 이러한 돌혈 혈장에도 입수두뇌, 청룡선익, 백호선익, 전순이 구비되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귀성(鬼星)과 요성(曜星)이 있어야 진혈로써 역량이 있고 이 돌혈에도 큰것(大突穴), 작은것(小突穴) 등이 있다.

유혈은 용이 길게 뻗어 내려온 형태로, 여성의 젖가슴과 같다는 의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sup>30)</sup> 유혈의 혈장은 여자의 유방(乳房)이나 잉태하여 만삭(滿朔)이 된 여인의 배(腹) 모습과 같이 생긴 혈장이다. 혈심에 작은 와(窩)가 있어야

혈은 엷어놓은 솔처럼 중심 부분이 동그랗게 솟아오르고 그 주변에는 솔밭과 같은 바위가 솟아오른 형태를 이루고 있다.<sup>31)</sup> 이 돌혈은 낮게 숨어서 번역하든 용맥이나 또는 평지(平地)로 떨어져 숨어서 낮게 번역(變易)하든 용맥이 갑자기

30)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128

31)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128



#### 4. 바람(風)과 물(水)

풍수지라는 학문은 풍수(風水)라는 두 글자로서 대표할 만큼 바람과 물을 중요시해 왔다. 바람과 물은 어디까지나 땅에 작용하는 연분에 불과하지만 지금까지 풍수지리 요체(要諦)는 장풍(葬風)과 득수(得水)에 있다고 하여 장풍, 득수의 줄인 말로 풍수(風水)라고 쓰여 왔다. 장풍(葬風) 득수(得水)란 글자 그대로 바람을 잘 갈무리하고 선성(善性)의 물의 기운(氣運)을 얻어야 된다는 뜻이다.

##### 1) 장풍(葬風)

바람(風)이란 공기가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한다. 공기(空氣) 즉, 직사풍이나 강한 바람은 간섭이 되고 순풍(順風)으로 안정이 될 때 동조(同調)되기 때문에 장풍(葬風)이라고 표현했다. 보호사(保護砂)가 제 기능을 다 할 때 완벽한 장풍이 된다. 그러나 자연은 100%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어느 정도 작은 결함은 일단의 흉(凶)으로 감수하고서라도 다소 보완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나 보호사가 함몰된 부분이 있어서 혈장으로 직사풍이 침입하거나 관쇄가 되지 못하여 골바람이 치고 들어오는 곳은 사용이 불가하다. 요컨대 장풍이란 직사풍(直射風)을 피하고 순화(順和)된 바람을 택하는 것이 요체다.

##### 2) 득수(得水)

득수란 물을 얻는다는 뜻으로, 지세에서 처음 물이 보이기 시작한 위치를 말한다.<sup>32)</sup> 땅도 적절한 습도가 조윤(調潤)되어야 땅에너지의 응축(凝縮)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이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太過) 혈심(穴心)이 파괴되고 반대로 물이 너무 모자라면(不及) 혈심이 메말라서 에너지 응축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기(氣)는 물을 만나면 멈추고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풍수지리에서 물은 바람보다 훨씬 비중이 크기에 물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

32)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서울1999, p103



그림 22 신격호 부친묘소 삼합 특수처

### 제 III 장 조선왕릉의 탐구

#### 제 1 절 조선왕릉의 기초이론

##### 1. 조선시대 능역의 입지적 기준

왕릉(王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한양으로부터의 거리, 주변지역과 도로와의 관계, 풍수지리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주변 산세와의 관계를 통하여 입지됨이 일반적인 기준이며, 능역의 입지에 대해서는 경국대전에 기재된 한양으로부터의 거리 즉 “능역은 한양성 사대문 밖 백리 안에 두어야한다”는 훈령에 의하여 입지하였다. 최소 거리 기준도 있으며 이는 도성으로부터 10리 이내와 인가로부터 100보 이내에는 법전에 의하여 묘지를 쓰는 것을 금지하였다가, 조선시대 말기에는 한양으로부터 100리 이내와 인가로부터 오십보 내에는 매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능역의 입지는 도성을 중심으로 반경 10리 밖 100리 이내가 기준이 되었으며 이를 현대적 수치로 표현하면 4km 밖 40km 이내에 입지하고 실제 북한에 위피한 후릉과 여주의 영릉, 영월의 장릉을 제외하면 모두 한양 사대문 밖 반경 40km내에 입지하고 있다. 지명으로는 동쪽은 팔당, 서쪽은 파주, 남쪽은 용인 정도가 되며, 지형조건으로서 조선시대의 왕릉은 고려의 왕릉과는 다르게 높은 산은 피하고 신라의 왕릉처럼 들판역시 사용하지 않았으며 산도들도 아닌 비산비야(非山非野)지역을 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세론적 관점에서 생기를 받아 흠어지지 않고 모여지는 곳을 우선시 하였는데, 이 생기가 모여지는 곳(고기압지역)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명당(明堂)인 것이다. 우리나라 산세지형은 산과 산이 연이어진 산세지형이기에 명당이 되기 위해서는 태조산에서 발생된 생기가 중조 소조 현무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이때 생기(生氣)를 품고 있는 모체는 흠이며 이 흠의 더미인 잉(孕)에 취기를 하여 혈이 맺혀지기 위해서는 지룡(枝龍)은 낮은 야산의 형태를 갖추어야하는데 이를 조선



그림 23 왕릉의 지세

의 왕릉에서는 강(岡)이라 표현하였고 이러한 강을 갖춘 지형이어야만 왕릉으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이었다. 왕릉의 지세는 사신사(四神砂)의 기능을 중시하여 배산임수(背山臨水)를 필수조건으로 하여 장풍(藏風)과 득수(得水)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지세를 으뜸으로 선정하여 왔다.

즉, 왕릉의 기본적인 요건은 세(勢) - 형(形) - 혈(穴)로 정리할 수 있는데 세(勢)는 산기의 기세를 독특하게 보여주는 산을 세산(勢山)이라 말하며 이는 보이는 품이 보통산 과는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이며 골산과 육산으로 구분되어 골산은 바위와 암석이 우람하게 보이는 산 즉 인왕산, 북한산, 설악산 등을 말한다. 그리고 육산으로서는 사람의 살처럼 근육질로 뭉친 산 즉 지리산과 소백산을 예로 들 수 있다. 형(形)이란 형산이라 하며 혈이 맺혀질 수 있는 산을 말하며 육안으로 보아 박환이 다되어 살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어머니 품처럼 포근하고 다정하게 보여지는 산을 말한다. 이 형산이 있어야만 혈이 맺혀지며, 이런 혈을 왕릉에서는 선택하여 사용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세 - 형 - 혈이 갖추어야 왕릉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 2. 조선왕릉 능침주변의 소나무

능침 주변에 소나무를 주로 식재했던 이유에 대하여 정확히 기록된 사료(史料)는 아직 찾지 못하였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근거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1)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리·생태·형태적 특징

소나무가 상록수라는 것과 은행나무나 느티나무처럼 장수(長壽)하고 낙엽활엽수처럼 가지가 옆으로 뻗는 성질보다도 위로 곧게 뻗는 형태적 특징은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 선사시대부터 이 땅에 생육해온 주요 수종으로 한반도의 자연환경이 소나무의 생육에 적합했던 것도 주요 요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소나무의 생리 및 생태적 특징과 형태적 특징은 상징성과 용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 2) 소나무의 이러한 생리 및 생태적인 특징을 근거로 한 상징성

소나무는 오래 사는 생리적 특징에 근거하여 소나무는 십장생의 하나로 상징되었으며, 늘 푸른 나무이므로 절개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공자(孔子)의 논어(論語) 자한(子罕)편에 추운 겨울이 되어서야 송백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는 ‘세한연후지송백후조야(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也)’라는 글귀는 예전부터 소나무가 절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수목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사마천의 사기(私記)에는 ‘송백(松柏)은 백목의 장으로서 황제의 궁전을 수호하는 나무’라고 하였으며, 왕안석(王安石)의 자설(字說)에는 ‘소나무는 공(公)의 작위를 잣나무에게는 백(伯)의 작위를 주었다’라고 하여 소나무를 매우 귀한 나무로 여겨졌다.

또한 소나무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수단으로 여겨져 성주맞이(성주풀이)에도 소나무가 이용되었다. 소나무 줄기를 하늘을 오르는 용으로 보기도하여 소나무를 적룡(赤龍), 소나무 껍질을 일명 적룡피(赤龍皮)라고도 하였다.

### 3) 소나무 식재의 중요성

무덤가에 심어놓은 도래솔은 정화(淨化)와 벽사(辟邪)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능의 배후와 측면에 심겨진 소나무의 상징성에 대하여 강희안의 양화소록에 언급된 소나무 식재의 중요성을 예로 들며 소나무 경관이 명당의 요소로서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유지되었을 것이라는 추측과 음양오행(陰陽五行)에 의해 소나무가 모든 나무 중에서 특별히 오행(五行)의 목(木)을 차지했다는 것은 소양(小陽)을 의미하며 봉분 주위의 음(陰)의 내용과 조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큰 소나무는 천년이 지나면 그 정기가 청우(靑友)가 되고 거북 모양이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거북은 현무(玄武)를 의미하고 현무는 북쪽 방위를 표현하는 것이어서, 능의 후방에 심은 것이 아닌 가 추측하기도 하였다.

### 4) 소나무의 다양한 용도

소나무는 건축재, 가구재, 조선용재(造船用材) 등과 왕실 또는 귀족들의 관재로 쓰기위해 소나무 숲을 보호하였고, 특히 굵고 안쪽의 심재가 황적색을 띤 고급관재는 황장목(黃腸木)(임금의 관으로 사용)이라 하여 보호하였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능(陵)· 원(園)· 묘(墓)의 제사에 사용할 향목(香木)과 목탄(木炭)을 제공하기 위해 나라에서 지정한 향탄산(香炭山)에서 소나무 숲을 급게 하였다는 기록도 있지만 향탄산은 능침과 멀리 떨어진 독립적인 산지(山地)도 많아 능침에 숲을 급기 위해 소나무를 식재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여겨진다.

소나무의 이러한 여러 특징에 따라 왕릉 주변이나 궁궐, 또는 야산에도 소나무를 집중적으로 식재하였으며 특히 조선시대 이후에는 소나무를 집중적인 관리하여 조림, 벌목, 무육 등의 산림사업이 시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대부분의 능역공간에는 소나무가 가장 많이 생육하고 있어 군락(群落)을 이루고 있으며, 잣나무는 비교적 최근에 식재되었고, 잣나무(전나무)는 오래 전에 식재된 대경목(大徑木)이 간혹

남아있다. 그 외 뽕나무, 삼나무, 가래나무 등의 다른 수종들은 능침 주변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sup>33)</sup> 이와 같이 왕릉에는 소나무를 주로 많이 사용하며 소나무는 사철나무로서 능 주변을 항상 푸르게 보존하고 소나무 특유의 성분으로 광중의 시신을 벌레로부터 발생되는 충염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더불어 오리나무도 많이 식재되고 있는데 오리나무는 물을 많이 먹는 나무로서 광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시신이 미이러가 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게 되어 능 주변에 많이 심어놓아 왕릉을 보호하여 왔다.

---

33) 서오릉산립형태조사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03, p123-124

## 제 2 절 조선왕릉의 구성

### 1. 조선왕릉의 공통조건과 무덤의 구분

왕릉은 조선시대의 통치철학의 일환으로 사용되었기에 왕릉의 조건은 풍수로 시작하여 풍수로 끝을 맺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풍수지리를 중시 여겨왔다. 왕권수호를 위한 통치철학으로 풍수지리는 모든 조건의 중앙에 자리를 하고 있고 후세의 발복을 위하여 풍수를 이용한 흔적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본적인 공통조건인 능의 형식은 단릉(單陵), 쌍릉(雙陵), 삼연릉(三連陵),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 동원상하봉, 합장릉(合葬陵) 양식이며 모두들 왕을 기준으로 하여 우상좌하라는 매김질과 유교예제를 고수했던 것이 왕릉의 특징이고, 모든 능은 지세론 적인 관점에서 생기를 얻을 수 있는 혈(穴)자리에 매김질 되어야 했고,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풍수를 알아야 했고 일반 무덤과는 달리 높은 강(岡)을 권좌의 상징으로 삼아 여기에 능침을 만들어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형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적인 효과는 유교를 숭상한 조선의 통치술임을 엿볼 수 있는 한 대목이기도 하며, 여기에 더 효과를 주는 것이 일반 무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석물중 무인석(武人石)을 사용하여 권위를 더하여주고 이는 병권(兵權)은 오직 왕(王)의 전유물인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묘제를 보면 왕과 왕족의 신분에 따라서 능, 원, 묘(陵, 園, 墓)로 구분되고 있다.



그림 24 능

#### 1) 능(陵)

대왕 및 대왕대비의 분묘, 태조대왕의 선대추존의 분묘, 왕 또는 왕비의 위를 추존한 자의 분묘로서 봉분만을 말하지 않고 사실상 분묘의 주변을 전부 통틀어서 능(陵)이라 하며 조선

왕릉 상설도에 포함한 모두를 합하여 능(陵)이라 한다.

## 2) 원(園)

왕세자 및 왕세자비의 분묘, 왕자 및 왕자비의 분묘, 사친(私親) 즉 왕의 생모였던 빈궁의 분묘로서 능에 준한 설치물이 있지만 그 규모는 능보다 크지 않고 대표적으로 병풍석, 난간석, 무인석이 없다.

## 3) 묘(墓)



그림 25 묘

폐왕인 연산군 및 광해군과 그 사친의 분묘, 하가(下嫁)하기 전의 공주, 옹주의 분묘, 후궁의 분묘, 왕의 빈, 귀인, 소의, 숙원등의 묘를 칭하며 왕자 왕녀를 낳고 왕이 죽기 전에 그들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왕실의 분묘로 한 것이며 능, 원보다 훨씬 규모가 작다.<sup>34)</sup>

## 2. 조선왕릉의 제조기관

일반적으로 왕이 승하하면 국장을 관장할 임시기구인 도감이 설치되어 국장업무를 수행하였다. 빈전, 국장, 산릉도감의 최고위직을 제조(提調)라 하여 빈전도감제조(殯殿都監製造), 국장도감제조(國葬都監製造), 산릉도감제조(山陵都監製造)라 칭했고 세 명의 제조들을 총괄 관장하는 총호사(摠護使)는 주로 좌의정이 맡았다.

### 1) 빈전도감(殯殿都監)

승하한 임금의 옥체에 관한 지밀한 직무를 맡고 소림, 대림 때에 필요한 수의와 홀이불 등 각종 장례물품을 준비하며 1명의 당상관과 1명의 당하관으로 구성되는 조금은 비중이 없는 직무라 할 수 있다.

34) 지종덕, 지적의 이해, 기문당, 서울2003, pp251-252

## 2) 국장도감(國葬都監)

관과 상여 등에 해당되는 채궁(梓宮), 거여(車輦) 그리고 부장품들을 준비하며 주요임무는 궁궐에서 왕릉까지 발인행렬을 책임지는 임무를 맡는다. 구성 직책으로 예조판서, 호조판서, 기술 관리청인 선공감(繕工監)과 네 명의 당하관에 기술직 관원들을 두었다.

## 3) 산릉도감(山陵都監)

왕릉 현장에서 토목공사, 석물조성과 건축물, 조경 등 가장 힘든 역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조판서, 선공감, 당하관 두 명과 몇 명의 기술직 관원으로 열 명 안팎이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부역하는 인원은 건원릉의 경우 한 달 이상 6,000명(충청도3,500명, 황해도2,000명, 강원도500명 징발)이 동원되었다.

## 3. 조선왕릉 용어해설

조선왕릉은 조선초기에서 중기 말기에 이르기까지 왕릉을 구성하는 조형물의 크기와 능력의 규모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으나 큰 틀에서 보면 크게 달리하는 것은 없다. 석물의 대, 소 능상위의 봉분을 둘러싸고 있는 둘레석과 난간석의 모양, 망주석 세호의 상하운동성 등이 왕권의 권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1) 조선왕릉 용어

조선왕릉과 관련되어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1) 갯석 : 비석의 머리 부분에 집처럼 얹은 돌을 말함.
- (2) 능(陵) : 왕과 왕비의 무덤.
- (3) 단릉(單陵) : 왕이나 왕비가 단독으로 모셔진 능.
- (4) 동원상하봉릉(同原上下封陵) : 왕과 왕비의 능이 같은 언덕의 위아래에 걸쳐 각각 조성된 능.(의릉, 명릉)

- (5)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 : 왕과 왕비의 능이 정자각 뒤편 좌우의 서로 다른 언덕 위에 조성된 능.(현릉)
- (6) 묘(墓) : 능과 원 이하의 무덤을 총칭하여 부름.
- (7) 복위(復位) : 폐위되었던 제왕이나 후비(后妃)가 다시 그 자리에 오름.
- (8) 부묘(附廟) : 3년 상이 지난 뒤에 그 신주를 종묘에 모심.
- (9) 삼연릉(三連陵) : 한 언덕에 나란히 왕과 왕비, 계비의 세 봉분을 위치한 형태.(동구릉의 경릉이 유일함)
- (10) 석주(石柱) : 난간석에서 망주석 모양의 제일 높은 기둥.
- (11) 수라간 : 제사 음식과 제물을 준비하던 장소. 수복방 맞은 편에 위치하는데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는 능이 대부분이다.
- (12) 수릉(壽陵) : 임금이 죽기 전에 미리 자리를 정해둔 자신의 무덤.
- (13) 시호(諡號) : 제왕이나 재상. 유생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여 붙이는 이름.
- (14) 신도비(神道碑) : 능이나 묘 주인의 생전의 업적을 기록하여 세우는 비석으로, 남한의 조선 왕릉 중에는 건원릉과 현릉에만 있음.
- (15) 십이지신상 : 모든 방위의 외침으로부터 왕릉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진 동물상으로 열두 방향을 표시한다. 자(子)(쥐), 축(丑)(소), 인(寅)(호랑이), 묘(卯)(토끼), 진(辰)(용), 사(巳)(뱀), 오(午)(말), 미(未)(양), 신(申)(원숭이), 유(酉)(닭), 술(戌)(개), 해(亥)(돼지).
- (16) 쌍릉(雙陵) : 왕과 왕비를 하나의 곡장 안에 모셔 봉분을 좌우로 나란히 조성한 능. 바라보아서 왼쪽이 왕릉, 오른쪽이 왕비릉.
- (17) 원(園) : 왕세자와 왕세자비 그리고 왕의 사친의 무덤.
- (18) 지석(誌石) : 죽은 사람의 이름과 생몰연도 및 행적을 적어 상석과 능상 사이에 묻음.
- (19) 진봉(進封) : 왕세자, 세손, 후(后), 비(妃), 빈(嬪)에게 봉작(封爵)을 더 높여주던 일.
- (20) 책봉(冊封) : 왕세자, 왕후, 비(妃), 빈(嬪), 부마 등을 작위를 내리는 일.
- (21) 천장(遷葬) :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김. 천묘(遷墓)라고도 함.



- (2) 능침 : 왕이나 왕비의 봉분을 말함. 능상(陵上)이라고도 함.
- (3) 병풍석(屏風石) : 봉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봉분 밑 부분에 12방위로 두르는 12개의 돌. 돌레돌, 호석(護石)이라고도 함.
- (22) 추봉(追封) : 죽은 뒤에 관위(官位) 등을 내리는 행위.
- (23) 추존(追尊) :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이에게 임금의 칭호를 높여주는 것. 추숭(追崇)이라고도 함.
- (24) 합장릉(合葬陵) : 왕과 왕비를 하나의 봉분 아래에 함께 모신 능.

## 2) 능 상설도 해설

능을 조성시 능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1) 곡장(曲牆) : 왕릉을 보호하기 위하여 삼면으로 둘러놓은 담장.
- (4) 난간석(欄干石) : 봉분 주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봉분 돌레에 설치한 돌난간. 제일 높은 기둥을 석주(石柱), 석주를 가로지른 횡석주를 죽석(竹石)이라 하고, 죽석의 중간에 받쳐준 작은 기둥을 동자석주(童子石柱)라 함.
- (5) 지대석(地臺石) : 병풍석의 변석 밑을 받쳐놓은 기초가 되는 부분.
- (6) 상계(上階) : 능원은 장대석으로 구분지은 세 단계로 되어 있다. 가장 높은 상계는 왕이나 왕비의 침전인 능침이 자리하는데, 혼유석이 놓여 있는 단. 초계라고도 함.
- (7) 중계(中階) : 문인석과 석마가 세워진 중간 단.
- (8) 하계(下階) : 무인석과 석마가 서 있는 아랫단.
- (9) 석양(石羊) : 죽은 이의 명복을 빌며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는 뜻으로 설치함.
- (10) 석호(石虎) : 능침을 지키는 호랑이 모양의 수호신. 석양과 함께 능침을 수호하는 의미로 밖을 지켜보는 형태로 설치함.
- (11) 망주석(望柱石) : 봉분 좌우측에 각 1주씩 세우는 기둥. 그 기능에 대해서는 육신에서 분리된 혼이 멀리서 봉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표지의 기능을 한다는 설,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기능을 한다는 설, 왕릉의 풍수적 생기가 흩어지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설 등 여러 주장이 있다.



그림 26 능 상설도 후면

- (12) 혼유석(魂遊石) : 일반인의 묘에는 상석이라 하여 제물을 차려놓는 곳이지만, 왕릉은 정자각에서 제를 올리므로 혼령이 앉아 노는 곳.
- (13) 고석(鼓石) : 혼유석의 받침돌로서 모양이 북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사악한 것을 경계하는 의미로 귀면을 새겨 놓음.
- (14) 장명등(長明燈) : 왕릉의 장생발복을 기원하는 뜻으로 세웠다. 조선 왕조 최초로 만들어진 정릉의 장명등은 사각지붕이었는데, 초기에는 팔각지붕이었다가 숙종 명릉부터 다시 사각지붕으로 양식이 변함.
- (15) 문인석(文人石) : 장명등 좌우에 있으며, 언제든지 왕명에 복종한다는 자세로 양손으로 홀(忽)을 쥐고 서 있음.
- (16) 무인석(武人石) : 문인석 아랫단에 석마를 대동하고 있으며, 왕을 호위하고 왕이 위협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뜻에서 장검을 짚고 위엄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
- (17) 석마(石馬) : 문인석과 무인석은 각각 석마를 대동하고 있음.
- (18) 예감(瘞坎) : 정자각 뒤 서쪽에 제향 후 축문을 태워 묻는 곳으로 석함(石函)이라고 하며, 소대(소전대), 망료위(望燎位)라고도 함.
- (19) 산신석(山神石) : 정자각 뒤 오른쪽, 보통 예감과 마주보는 위치에

설치한 것으로 장사 후 3년간 후토신(땅을 관장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사용됨.

(20) 정자각(丁字閣) : 제향을 올리는 곳으로 황제는 일(日)자 모양으로 침전을 조성하고, 왕은 정(丁)자 모양의 정자각을 조성함. 정자각에 오를 때는 동쪽으로 오르고 내려올 때는 서쪽으로 내려오는데 이것을 동입서출(東入西出)이라 함.

(21) 비각(碑閣) : 비석이나 신도비를 안치하는 곳. 신도비(神道碑)는 능 주인의 생전의 업적을 기록하여 세우는 비석.

(22) 참도(參道) :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 폭 3미터 정도로 돌을 깔아놓은 길. 왼쪽의 약간 높은 곳은 신이 다니는 길이라고 신도(神道)라 하며, 오른쪽의 임금이 다니는 길은 어도(御道)라고 하며 약간 낮음.

(23) 수복방(守僕房) : 능을 지키는 수복이 지내던 곳으로 정자각 동쪽에 지었음.

(24) 배위(拜位) : 홍살문 옆에 한 평 정도 돌을 깔아놓은 곳. 판위(板位), 어배석(御拜石), 망릉위(望陵位)라고도 함. 제향행사 등 의식 때 망릉례 등을 행하는 곳.

(25) 홍살문(紅箭門) : 홍살문은 능, 원, 사당 등의 앞에 세우며, 신성한 지역임을 알리는 문. 붉은 칠을 한 둥근 기둥 2개를 세우고 위에는 살을 박아놓음. 홍문(紅門) 또는 홍전문(紅箭門)이라고도 함.

## 제 IV 장 서오릉의 경릉에 대한 사례연구

### 제 1 절 서오릉의 기초자료

#### 1. 서오릉의 조성 현황

서오릉이 조성된 것은 세조 3년 세조의 장자인 의경세자가 20세의 나이로 요절하여 그의 부친이던 세조가 풍수지리 이론에 의거하여 명당 즉 길지로 선정하여 이곳에 능역을 조성하면서 비롯되었다. 조선시대의 왕릉으로는 동구릉 다음가는 조선왕실의 족분(族墳)으로서 이곳에는 왕이 머물던 경복궁의 서쪽에 있고, 경릉(敬陵), 창릉(昌陵), 익릉(翼陵), 홍릉(弘陵), 명릉(明陵) 등 5개의 왕릉이 있다하여 서오릉(西五陵)이라 부른다. 이곳에는 5릉 외에 명종의 첫째 아들 순희세자와 공희빈 윤씨의 ‘순창원’과 숙종의 후궁으로 인현왕후와 함께 유명한 장희빈의 ‘대빈묘’ 마지막으로 사도세자의 어머니인 영빈 이씨의 ‘수경원’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서오릉은 사적 198호로 지정되어 있다.

연 혁 : 1960년 7월 1일 서울지구 관리소 서오릉, 서삼릉 출장소 신설

1999년 5월 24일 문화재청 승격 고양지구 관리소 개편

조 직

고양지구 관리소

서오릉(西五陵) (사적 제198호)

서삼릉(西三陵) (사적 제200호)

온릉(溫陵) (사적 제210호)

영희원(永懷園) (사적 제357호)

서오릉 면적 : 565,977평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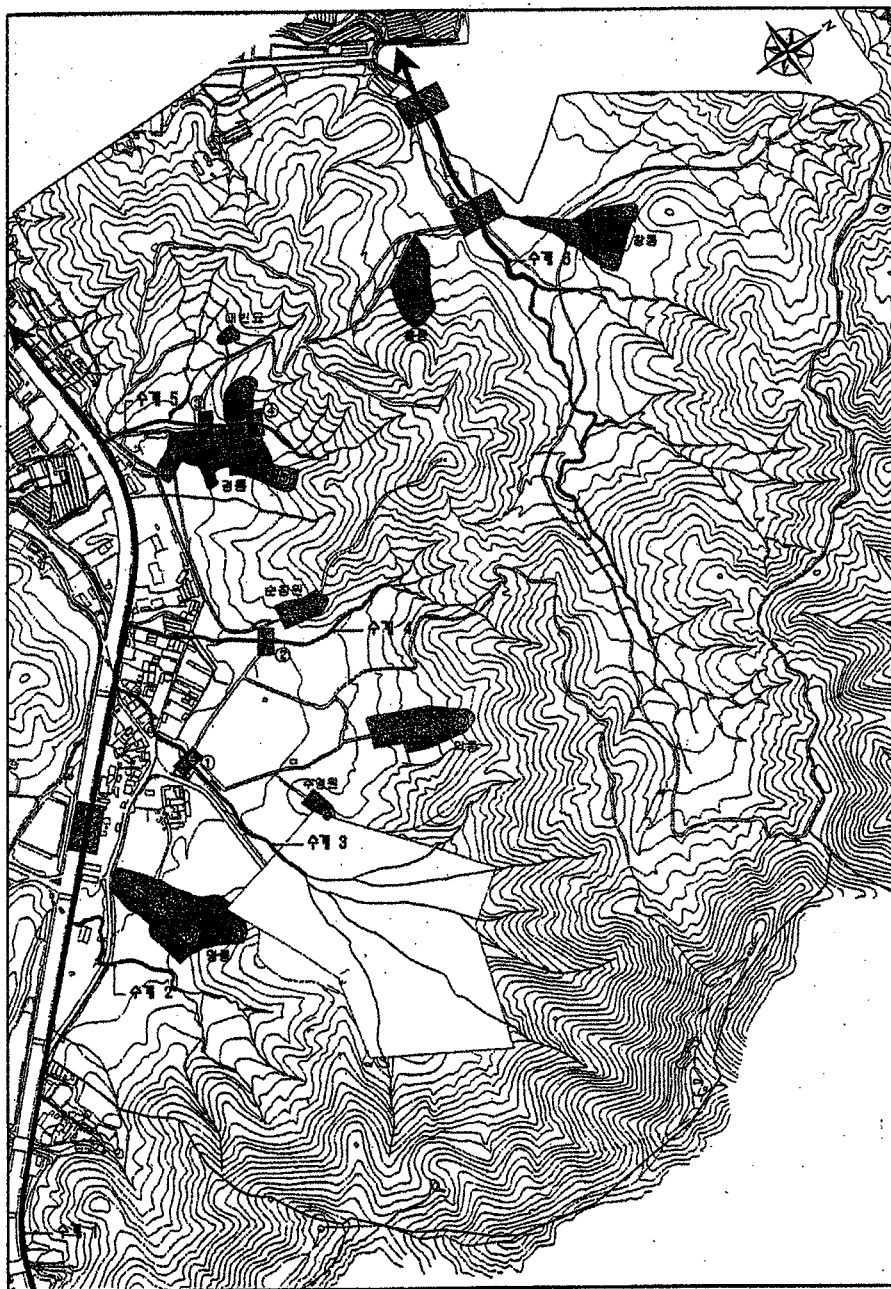


그림 27 서오릉 분포현황과 수계(水界)

## 2. 서오릉의 자연환경

### 1) 서오릉의 전체적인 지형

서오릉의 지형은 KBS 방송 송신탑이 설치된 앵봉을 중심으로 동서와 남북으로 작은 능선이 형성되어 있으며 동서 능선의 하부인 남사면을 중심으로 하여 동(東)에서 서(西)로 수경원, 익릉, 순창원, 경릉, 대빈묘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곳은 풍수적으로 산의 앞면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능선 후면에 서오릉지역에서 유일한 소계곡 하단부에 창릉과 홍릉이 자리하고 있고 명릉은 현재의 관리사무소 옆에 서사면을 향하여 위치해 있다. 서오릉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은 KBS 송신탑이 설치된 앵봉으로 해발 234m이고 관리사무소는 해발 27m로 표고 차이는 그리 심하지 않다. 앵봉 아래쪽에는 군사시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곳 앵봉과 군사시설 사이의 사면은 경사 약 30~40도로 매우 경사가 심하다. 그 외 지역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며 조림, 병충해 방지, 임내정리 등의 산림작업을 위하여 곳곳에 산림순찰로가 설치되어 있다.<sup>35)</sup>

### 2) 수계(水界)

서오릉에는 동서(東西)로 이어지는 작은 능선이 형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명당수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며, 이 명당수들이 모여 암거(暗渠)를 통하여 인접한 창릉천으로 합류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 은평구와 경계지역인 벌고개 지역에서부터 흘러내린 계류는 서오릉로(西五陵路)를 지나 용두교를 거쳐 창릉천에 합류한다. 창릉과 홍릉 주변에는 서오릉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계곡이 흐르고 있다. 이 계곡은 앵봉에서 시작되어 동(東)에서 서(西)로 흘러 창릉천에 합류한다. 계곡의 폭은 상류에는 약 1m, 서오릉 외곽경계인 창릉 앞쪽에는 5~8m에 달한다. 또한 이 지역의 소류(小流)들은 경사가 지고 계류의 길이가 짧으며 배수가 양호하여 여름철의 우기에도 특별한 피해는 발생되지 않는다.<sup>36)</sup>

35) 서오릉산림형태조사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03, p11

36) 서오릉산림형태조사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03, p11

### 3. 서오릉의 입지적 특성

서오릉은 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정릉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다른곳에 위치한 조선왕릉과 비교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왕조의 산릉은 ‘북도팔릉(北道八陵)’을 제외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개풍·파주·양주·고양·김포·광주·여주·화성·영월 등의 지역에 산재해 있다. 개풍의 후릉, 여주의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그리고 영월의 장릉(莊陵)을 제외하면 한양으로 중심으로 반경 40km 안에 장릉(長陵)·용릉·건릉의 3개가, 반경 30km 안에 공릉·순릉·영릉(永陵)·장릉(章陵)·광릉·사릉의 6개가, 반경 20km 안에 동구릉·서삼릉·헌릉·인릉·태릉·강릉의 16개가, 그리고 반경 10km 안에 정릉·서오릉·의릉·선릉·정릉(貞陵)의 9개가 각각 위치해 있다.

서오릉은 정릉(貞陵;4km이내) 다음으로 도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인 4km~6km(10리~20리)에 위치하고 있다. 서오릉의 위치가 도성에서 가장 가까운 족분(族墳)으로 위치하게 됨은 경릉 조성이후 예종(창릉(昌陵))의 위치를 정함에 있어 정인지(鄭麟趾)의 다음과 같은 말을 볼 수 있다. “.....이 산은 청룡이 높고 백호가 알아서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니나 다만 한양에서 가깝다는 것이 그 취할 점입니다.....”라고 하여 도성으로 부터의 거리가 가까움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고 있음을 밝혀놓고 있다.<sup>37)</sup>

### 4. 서오릉의 산경내맥

고양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풍수적으로 길지로 인정받아 왔다. 그 지리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동남으로는 수도 서울과 접하고 동으로는 양주군, 북으로는 파주군, 서남으로는 한강을 격하여 김포군과 마주하여 있다. 이러한 행정구역은 서울과 경계를 이루는 북한산(北漢山)·응봉(應峯)·봉산(峯山)과 그 산줄기, 양주군과 경계를 이루는 노고산(老姑山)·개명산(開明山)과 그 산줄기, 파주군과 경계를 이루는 우암산(牛巖山)·명봉산(鳴鳳山)·황룡산(黃龍山)과 그 산줄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능내(陵內)에는 대자산(大慈山)·견달산(見達山)·고봉산(高

37) 서오릉산림형태조사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03, p42



峯山)· 국사봉(國祀峯)· 망월산(望月山)· 대덕산(大德山) 등 많은 구룡 지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 사이사이 흐르는 세곡류(細谷流) 들이 창릉천(昌陵川)과 곡릉천(曲陵川)을 이루어 한강과 임진강으로 흐른다.

이러한 지형은 풍수지리에 적용되는 순처(順處)· 왕처(旺處)의 명당 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다. 따라서 배산임수의 지형에 유택(幽宅)을 얻고자 했던 조선시대에 이미 많은 능,원,묘가 조성 되었다.<sup>38)</sup>

서오릉까지의 내룡맥은 여암 신경준의 『산경표』에 의하여 지맥을 살펴보면 서오릉의 시작점은 백두산이며 자세한 내맥은 다음과 같다.

백두대간(분수령) - 백운산 - 망국산 - 운악산 - 주엽산 - 축석현 - 불곡산 - 홍복산 - 도봉산 - 삼각산 - 문수산 - 박석현 - 앵봉 - 효경봉(서오릉)

상기 지맥에서 보듯이 서오릉의 지맥은 삼각산 - 문수산 - 박석현 - 앵봉 - 효경봉으로 이어지며 앵봉 줄기에 서오릉, 건달산 지맥에 서삼릉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서삼릉과 서오릉은 모두 삼각산 줄기에서 분벽하여 조성되었다. 이러한 점은 동구룡이 포함된 양주의 지맥이 한양의 지맥과는 비교적 일찍 분기하여 수락산을 이루어 독립적인 지맥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고양의 지맥은 도봉을 중심으로 한 한양의 지맥에서 갈라진 것이라는 지맥근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동구룡이 주로 상징적인 권력자로서의 왕과 왕비의 능지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반면에, 서쪽은 주로 능보다는 왕의 가족과 친족을 모시는 묘지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차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성부 동쪽과 서쪽은 지맥의 성격에 따라 그 이용방법도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왕궁에 이르는 지맥에서 갈라진 한성부 서쪽의 갈래는 일종의 왕궁지맥의 부속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그와는 달리 왕궁에 이른 지맥과 일찍이 분기된 한양 동쪽의 병렬적인 지맥에는 상당히 독립적인 의미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양의 지형적 특색과 함께 또한 백악을 주산으로 한 경복궁 이외에 또다시 응봉을 주산으로 하여 창덕궁을 건립하고 있는 것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양의 지형적 특색은

38) 서오릉산림형태조사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03, p44

우백호인 인왕산이 높고 좌청룡인 낙타산이 낮기 때문에, “서북쪽이 높고 동남쪽이 낮으므로 장자가 가볍게 되고 차자가 중하게 된다.”는 풍수설이 있었다. 이는 서북쪽의 인왕산과 무악산이 높고 낙산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풍수론적 해석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동쪽의 독립적인 동구릉의 산줄기를 중요시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은 최소한도 조선시대의 능지선택은 단순한 혈에 대한 풍수지리적 해석보다는 우선 왕궁이 있는 지맥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풍수지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또한 조선시대의 왕궁과 능의 운명은 같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왕궁터와 능터를 선택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sup>39)</sup>

---

39) 서오릉산림형태조사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03, p44

## 제 2 절 경릉(敬陵)의 기초자료

### 1. 경릉(敬陵)은 누구의 무덤인가?

세조의 첫째아들 의경세자이며 이후 의경세자의 차남인 자을산군 즉 세조비 정희왕후의 영향력으로 왕으로 등극한 성종의 친부로서 후에 왕으로 추존되어진 조선의 국왕이며 능이 조성되기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8 경릉 전경

#### 1) 경릉은 덕종(德宗)과 소혜왕후(昭惠王后)의 능이다.

경릉(敬陵)은 서오릉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능이다. 경릉은 추존왕(追尊王)인 덕종(德宗)의 능(陵)과 왕비인 소혜왕후(昭惠王后)의 능이 각각 나뉘어져 있는 동원이강릉 형식으로 되어있다. 원래 왕릉은 정면에서 왼쪽 능이 왕, 오른쪽 능이 왕비인데 경릉은 그 반대이다. 게다가 덕종(德宗)의 능과 소혜왕후(昭惠王后)의 능을 비교해보면 왕의 능이 좀 더 격식을 갖추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왕비의 능이 더욱 화려하다. 덕종(德宗)의 능(陵)이 왕릉답지 않게 형식만 갖춘 채 초라해 보이는 이유는 아버지인 세조의 명령 때문이었다. 덕종(德宗)은 왕이 되지 못하고 왕세자(懿敬世子)신분으로 죽었으므로 세조가 덕종(德宗)의 장례를 대군묘 제도에 따라 검소하게 치루고 화려하게 꾸미지 못하도록 명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혜왕후(昭惠王后)는 살아있을 적에 왕비가 되었고, 또 대왕대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종묘사직을 중요시 하는 조선이기에 왕세자인 지아비보다 왕대비인 지어미를 높이 쳐서 정면에서 왼쪽 능이 소혜왕후(昭惠王后), 오른쪽 능이 덕종(德宗)의 능이 되었다.

## 2) 왕세자 신분의 덕종(德宗) (의경세자(懿敬世子) 1438 - 1457)

세조(1417-1468)의 첫 번째 아들이었고 이름은 장, 자는 원명(原明)이었다. 1455년 수양대군인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자 왕세자가 되었고, 한확의 딸 한씨(훗날 소혜왕후)를 아내로 맞아 월산대군과 성종(成宗)을 낳았다. 의경세자(懿敬世子)는 어려서부터 예절이 바르고 공부하기를 좋아했고, 글씨를 잘 썼다고 한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잔병치레를 많이 하는 등 몸이 약해 20세의 젊은 나이로 일찍 생을 마감하였다. 훗날 의경세자(懿敬世子)의 둘째 아들이었던 성종(成宗)이 왕에 오르지 못하고 죽었던 아버지를 위해 ‘덕종(德宗)’으로 추존하였다.

## 3)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덕종(德宗)

의경세자(懿敬世子)의 죽음 뒤에는 아픈 사건이 숨어있다. 세조(世祖)는 역사에 남을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만 처음부터 그리 올바른 방법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었다. 세조(世祖)는 12살인 어린 조카 단종(端宗)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그래서인지 세조와 의경세자(懿敬世子)는 죽기 전에 단종(端宗)의 어머니였던 현덕왕후(顯德王后)의 혼령에 늘 시달렸고 병세가 점차 악화되었다. 의경세자의 갑작스런 죽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세조(世祖)가 유배시킨 단종을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은 날이었다. 단종(端宗)의 어머니이자 문종비였던 현덕왕후(顯德王后) 권씨가 꿈속에 나타나 “너는 흉악한 마음씨와 표독한 심술로 내 아들의 왕위를 빼앗아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저 멀리 유배를 보내더니 이제 목숨까지 끊으려 하는구나. 너와 내가 무슨 원한이 그리 많기에 이다지도 내 아들에게 못되게 구느냐? 너는 내 아들을 죽이니 나는 네 자식을 살려두지 않겠다!” 하며 세조를 매우 꾸짖었다. 꿈에서 깨어나 보니 마침 의경세자(懿敬世子)를 돌보던 내시가 황급히 달려와서 아뢰기를 “동궁마마께서 낮잠을 주무시다가 가위에 눌려 매우 위중하시나 이다” 하니 놀란 세조가 황급히 달려갔다. 그러나 이미 왕세자는 죽어 있었다고 한다. 의경세자가 죽은 후, 상심이 컸던 세조는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능을 파묘(破墓)하고 단종 또

한 10월 24일 교살 당한 채 동강의 어느 모래밭에 팽개쳐 저 버렸다.

풍수 신봉자 세조는 단종(端宗) 승하 한 달 뒤인 11월 24일 명당자리로 추천된 고양시 용두동에 직접 와 두루 살펴보고 지금의 경릉(敬陵)자리를 정하였다.

#### 4) 연산군의 할머니였던 소혜왕후(昭惠王后)

소혜왕후(昭惠王后)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진 못했다. 바로 조선시대의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燕山君) 때문이었다. 연산군(燕山君)은 소혜왕후(昭惠王后)의 손자였고, 소혜왕후(昭惠王后)는 연산군(燕山君)의 어머니인 윤씨를 왕궁에서 쫓아내 죽음에 이르는데 많은 영향을 준 바로 그 유명한 인수대비이다. 훗날 연산군(燕山君)이 왕위에 올라 어머니(폐비 윤씨) 사건을 알고 분노하여 자신의 어머니를 궁궐 밖으로 내쫓은 사람들에게 보복을 했다. 특히 연산군은 폐비 윤씨의 소생으로 인수대비는 폐비 윤씨를 자기 손으로 직접 쫓아낸 며느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연산군(燕山君)을 어릴 때부터 매우 차갑게 대했는데 훗날 연산군(燕山君)이 왕위에 올라 자기 어머니의 일을 들추어 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유배를 보내자, 이를 보고 병상에 있던 인수대비는 연산군의 여러 악행을 꾸짖자 머리로 인수대비를 들이받아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손자에게 엄청난 일을 당한 충격으로 그 며칠 뒤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 5) 경릉(敬陵)의 비문(碑文)

경릉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하여 비문의 내용을 해설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西五陵 (敬陵)

(앞면)

朝鮮國 德宗大王敬陵 昭惠王后祔右岡

(뒷면)

德宗懷簡宣肅恭顯溫文懿敬大王 皇明正統三年戊午九月十五日誕生.  
덕종회간선숙공현온문의경대왕 황명정통삼년무오칠월십오일탄생

乙丑初封 桃源君景泰六年乙亥 冊封王世子天順元年丁丑九月二日昇遐  
을축초봉 도원군경태육년을해 책봉왕세자천순원년정축구월이일승하

十日月二十四日葬于高陽東峰峴良坐之原壽二十諡懿敬 成宗卽位後成化  
십일월이십사일장간고양동봉현간좌지원수이십시의경 성종특위후성화

七年辛卯追尊爲王皇朝賜諡懷簡  
칠년신묘추존위왕황조사시회간

妃仁粹徽肅明懿昭惠王后韓氏 三月十二日誕生景泰六年乙亥冊封粹嬪  
비인수휘숙명의소혜왕후한씨 삼월십이일탄생경태육년을해책봉수빈

德宗追崇時尊爲王妃弘治十七年甲子四月二十七日昇遐五月葬于 大王陵  
덕종추숭시존위왕비홍치십칠년갑좌사월이십칠일승하오월장간 대왕릉

右岡癸坐之原(王后誕降不書年只書月日二九月八日誤以三月十二日書刻  
우강간좌지원(왕후탄강불서년지서월일이구월팔일오이삼월십이일서각

故謹依璿源世系書以丁巳九月八日)  
고근의선원세계서이정사구월팔일)

崇禎紀元後一百二十八年乙亥二月日立  
송정기원후일백이십팔년을해이월일립

(앞면)

조선국 덕종대왕경릉 소혜왕후부우강

(뒷면)

덕종회간선숙공현은문의경대왕.

중국정통(중국 명나라 英宗1435-1449의 연호) 3년(1438) 무오9월15일 탄생.

을축년(1445)초에 도원군에 책봉되고 경태 (중국 명나라 景帝 1449-1456의 연호) 6년(1455) 을해에 왕세자에 책봉 되었다.

순천(중국명나라 英宗 重祚1457-1464의 연호) 원년(1457) 정축 9월2일 승하하여 11월24일 고양 동봉현 간좌 언덕에 장사지냈다.

수는 20세. 시호는 의경, 성종 즉위 후 성화 (중국 명나라 憲宗 1464-1487의 연호) 7년(1442) 신묘에 왕으로 추존되었다.

중국에서 회간이란 시호를 내렸다.

왕비는 인수휘숙명의소혜왕후 한씨.

3월12일 탄생 경태 6년(1455)에 수빈으로 책봉 되었다.

덕종이 추송 되었을 때에 왕비로 되었다.

홍치 (중국 명나라 孝宗1488-1505의 연호) 17년(1504) 갑자 4월27일 승하하여 5월에 대왕릉 오른쪽 계좌에 장사지냈다. (왕후의 탄강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만 월일만 적혀있는데 9월8일이 잘못되어 3월12일로 적혀있다. 그러므로 선원계보에 의거 하여 정사년 9월8일로 적는다.) 승정 기원 후 128년(1755) 을해 2월 세움.<sup>40)</sup>

40) 서오능 경능 비문 원문 및 해석



## 2. 경릉(敬陵)의 득지과정

세조가 경릉을 점혈(點穴) 하기까지의 과정을 당시 대신과 국풍들과의 풍수대담을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하여 밝혀보고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의 조건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왕세자의 죽음과 세조의 내심(內心)

세조가 집권한 지 3년 만인 1457년 9월 2일 왕세자가 20세의 나이로 갑자기 요절 하여버린다. 그날 당장 좌의정 정창손등이 조계청에 모여 상제를 의논하고 삼도감을 설치하다.<sup>41)</sup> 등극한 왕이 아닌 왕세자이기에 전(殿)자를 사용할 수 없어 빈전도감(殯殿都監) 대신 염빈도감(斂殯都監)이 그리고 능(陵)자를 붙일 수가 없자, 조묘도감(造墓都監)이 산릉도감 역할을 맡아 국장도감(國葬都監)과 함께 설치된 다음날 9월 3일 복제를 정하고 정수충을 수묘관으로 한계미를 대전관으로 삼다.<sup>42)</sup> 종친과 문무백관들이 모여 왕세자 장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소렴(小斂)을 하고 9월 4일 대렴(大斂)을 하였으나, 재위를 마친 왕이 아니었기에 종묘사직에 고했다는 기록은 없었다. 9월 5일 한성부(漢城府) 윤(尹)이순지와 세자 좌필선 임원준을 양주 대방동에 보내 묘지를 상지케 하다.<sup>43)</sup> 세조는 왕세자 묘지를 택지하라는 어명과 함께 오늘날 서울 노원구 공릉동 지역으로 한성판윤(현재의 서울특별시장)과 세자의 스승에 지관들을 붙여 보내니, 9월 6일 한성부 윤(尹)이순지등이 광주, 과천 등지에 가 왕세자 묘지를 상지하다.<sup>44)</sup> 과잉 충성을 마다하지 않던 한성판윤 이순지(李純之) 팀은 경기도 광주와 과천까지 행보를 넓히면서 상지(相地)를 열심히 다녔다. 9월 7일 국장도감에 세자묘의 석물을 후하게 쓰지 못하도록 어찰을 내리다.<sup>45)</sup> 국장도감에 내린 세조의 어찰

41)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세조9권 3년 원전7집 218면 004

42)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세조9권 3년 원전7집 218면 004

43)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세조9권 3년 원전7집 219면 004

44)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세조9권 3년 원전7집 219면 002

45)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세조9권 3년 원전7집 219면 001

을 보아도 그때의 열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대저 이번 장례는 임금의 장례가 아닌데 모든 일이 정도에 지나친 것 같다. 그 무덤 안의 일은 마땅히 한껏 후하게 할 것이지만 무덤 밖의 모든 일은 비록 나의 장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박하게 해야 한다. 한갓 백성만 번거롭게 할 뿐이지 죽은 자에게는 유익할 것이 없다. 의당 이러한 뜻을 알고서 태반을 감손하여 작고한 이의(李懿)의 묘석(墓石)으로써 의상(儀象)을 만들되 대략 경상과 같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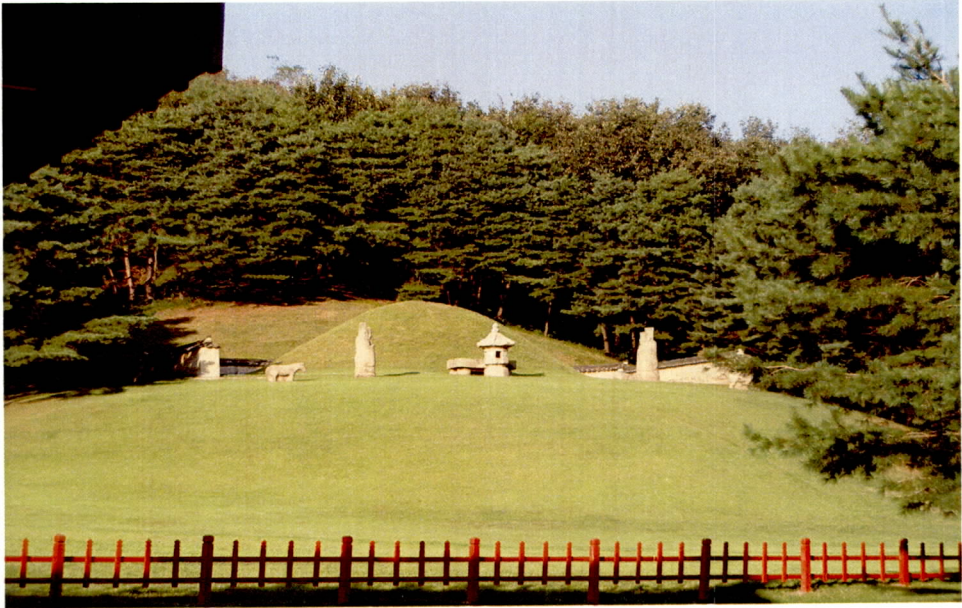


그림 29 경릉의 간소한 석물

어찰 내용들을 눈여겨보면 무덤 안과 밖의 왕심이 대조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게 된다. 무덤 밖을 소박하게 하라는 어찰에 따라 의경세자의 덕종릉(후일 추승됨)은 병풍석과 난간석 그리고 망주석에 무인석마저 생략된 채 오직 문인석만 서 있는 소박한 정경을 보여준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마땅히 한껏 후하게 하라는 무덤 안의 세조 왕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세조가 언제나 집착했던 풍수였고 구체적으로는 승생기(乘生氣)와 좌혈(坐穴)이 된다. 무덤 밖의 일인 석물들은 소박하게 할지라도 무덤 안의 승생기를 위한 좌혈 상지는 한껏, 곧 최고 명혈을 택하라는 엄명이었다.

## 2) 세조의 풍수해안으로 선택된 서오릉

조선초기의 군왕 중에서 태조와 세조의 풍수 신봉은 지나칠 정도로 심했다. 지나친 행동들은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한 자신의 콤플렉스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다. 태조는 고려 왕실에 쿠데타를 일으켜 개국한 왕이며, 세조는 왕통을 찬탈하여 등극한 왕으로 이러한 쿠데타와 찬탈에는 정통성 결핍이라는 콤플렉스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두 사람 모두 정통성 결핍에서 같은 행동을 유발시켰는데, 태조가 건목득자(建木得子)에 홀려서 한양으로 천도했던 것은 양기풍수(陽其風水)에 속한다. 그러한 태조보다 더 절박했던 것이 세조였다.

고려왕조는 불교와 풍수를 신봉했던 불교 풍수 국가였던 반면, 조선 왕조는 송유배불만 개조한 유교 풍수 국가였다. 조선 개국 초기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는 왕통으로 모든 권력을 집중시켰고 이러한 왕권 유지에는 두 개의 강력한 제도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향교, 성균관 그리고 과거제도로 이어지는 유교국가 체계였으며 다른 하나는 바로 조선 왕릉이라는 강력한 실력 행사로서 이는 조선왕조가 풍수국가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광경이기도 하다. 태조는 정통성 결핍을 유교와 풍수에서 모두 채울 수 있었지만, 세조의 경우 유교에서는 채울 수 없었으며 단종 찬탈이라는 낙인에 유교가 등을 돌리자, 세조는 정통성의 결핍을 오직 풍수에서 찾으려 들었다. 제 1인자의 고독은 더욱 풍수 신봉자로 몰고 갔고 세조에게 있어 유일하게 비밀 언덕이었다. 27세 때 수릉 택지에 참여하여 풍수 실무를 접했고 28세 때는 수기색제조로서 왕릉 내부 구조 전문가로 30세, 34세 때는 두 번의 국장을 경험했고, 36세에 문종 왕릉 택지 구성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풍수 결정권자였다. 이곳 덕종릉을 택지했던 당시 세조의 나이는 41세로 왕릉 풍수 연구 15년의 실력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세자 승하 후 9월 8일 한성부윤 팀이 강남의 풍수도를 가져왔고 9월10일에는 정인지, 강맹경 등에게 한강 남쪽 나루에 가서 왕세자 묘지를 상지케 하다.<sup>46)</sup> 대신 9명에 국풍 4명으로 구성된 막강한 정인지 풍수 팀이 강력한 명당 후보지를 천거한 대목을 살펴보면

46)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세조9권 3년 원전7집 220면 003

『정인지·강맹경·신숙주·한명회·황수신·권남·이순지·정식·임원준 및 풍수학의 노복·안효례·원구·조수종 등에게 명하여 한강 나루 남쪽으로 가서 왕세자의 묘지를 상지하게 하였다. 강맹경 등이 회계(回啓)하기를, “신 등이 본 여러 산은 모두 쓸 수 없었으나, 오로지 한강 나루 남쪽에 한 해좌(亥坐)의 금산(金山)을 얻었는데 쓸 만합니다.”

하였으나, 홀로 정인지만은 불가하게 여겨서 말하기를,

“이 산은 산이 물을 따라서 달리니, 왼쪽으로 안고 돌지 않아서 결단코 쓸 수 없습니다. 다시 좋은 곳을 골라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노복은 여러 사람의 의논과 같았고, 안효례·조수종은 정인지의 말과 같았다. 임금이 전지하기를,

“나는 항상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랐다. 내일 날이 갠 것 같으면 마땅히 친히 행행하여 자세히 볼 것이니, 경(卿) 등은 나를 좇도록 하라.”

하였다. 정인지가 인하여 아뢰기를,

“군왕은 비록 부모의 상(喪)이라 할지라도 졸곡(卒哭)이면 육선(肉餼)을 드시나, 만일 질병을 만나게 되면 비록 졸곡 전이라도 오히려 마땅히 육선을 드는데, 더구나 이제 지존(至尊)하신 몸으로 하민(下民)에 임하여 계신 터이니, 육선(肉餼)을 드시도록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차마 못하겠다.”』<sup>47)</sup> 하였다. 이에 세조는 자신이 직접 가소 보겠다며 앞장섰다. 9월12일 사평원에 가 왕세자의 묘지를 살피고, 헌릉과 건원릉에 가 새로 살피도록 하다.<sup>48)</sup> 『임금이 한강을 건너 말을 사평원 동쪽 언덕에 머물러 세우고, 전일 강맹경 등이 아뢰 땅을 살피보았다. 임금이 우선을 내저으면서 이르기를,

“주맥이 어지럽게 흩어져서 기운이 귀일하지 않으니, 결코 쓸 수가 없다.”

하고, 드디어 말에서 내려 잠시 머무르며 향온(香醞)을 들고 거가(車駕)를 수종한 종친(宗親)·재추(宰樞)와 군사에게 술을 내려 주었다. 드

47)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세조9권 3년 원전7집 220면 003

48)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세조9권 3년 원전7집 220면 001

디어 영의정 정인지·좌찬성 신숙주·이조판서 한명회·한성부 윤(尹)이순지·동부승지 정식에게 명하여 전 교감 방문중과 풍수학 안효례·원구·조수종을 거느리고 현릉으로 가게하고, 우의정 강맹경·우찬성 황수신·병조참판 구치관·우부승지 권지·필선 임원준에게 명하여 풍수학 노목을 거느리고 건원릉(建元陵)으로 가서, 각각 세자의 묘지를 상지하게 하고, 환궁(還宮)하였다.』<sup>49)</sup>

9월13일에도 세조는 과천 인덕원 동쪽에 가서 산세를 살펴보았으나 “좌우에 용호(龍虎)가 돌아 안은 것이 그 규모가 자못 아름답다.” 하고서는 다시 광주로 가서 묘지를 상지하게 하였다. 이에 9월14일 우의정 강맹경 등을 고양으로 보내 묘지를 상지케 하다.<sup>50)</sup>

『우의정 강맹경·우찬성 황수신·병조 참판 구치관·좌부승지 권지·필선 임원준·전 교감 방문중 등에게 명하여 풍수학 노목·안효례를 거느리고 고양으로 가서 묘지를 상지하게 하였다.』<sup>51)</sup> 이에 한 팀은 고양 땅으로 물러갔고 다른 한 팀은 양주 땅으로 갔던 9월14일 광주와 원평 두 곳의 택지가 올라오자 9월15일 당장 세조의 거동이 시작되었으나, 그곳에서도 양은 차지 않았다.

환궁한 세조가 경회루 동쪽 방에서 대신들과 국풍들을 모아 놓고 풍수 논의를 하였던 9월16일 경회루 동편 방에서 좌의정 정창손 등과 원평·과천의 묘지를 의논하다.<sup>52)</sup> 『경회루 동편 방에 나아가서 좌의정 정창손·우의정 강맹경·좌찬성 신숙주·우찬성 황수신·판원사 권남·좌참찬 박중손·병조참판 구치관·도절제사 홍윤성·한성부 윤 이순지·좌부승지 권지·우부승지 김질·동부승지 정식·좌필선 임원준, 풍수학 노목·안효례·조수종 등을 인견하고, 전에 상지한 과천·원평의 산세를 의논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이른바 주산(主山)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데, 현궁(玄宮) 위에 산맥이 떨어진 곳이 주산이 되는 것인가, 산이 쪽 뻗어 내려가다가 용호(龍虎) 밖으로 10여 리를 나가서 높은

49)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세조9권 3년 원전7집 220면 001

50)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세조9권 3년 원전7집 221면 001

51)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세조9권 3년 원전7집 221면 001

52)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세조9권 3년 원전7집 221면 002

봉이 있으면 이것으로 주산을 삼는 것인가?” 하니, 임원준·노목은 말하기를,

“산맥이 떨어진 곳이 주산이 됩니다.” 하고,

이순지·안효례는 말하기를,

“산맥이 생겨 나오다가 가장 높게 솟은 곳이 주산이 됩니다.”』<sup>53)</sup> 하여 세조의 이러한 질의에 대한 정답은 오늘날까지 단정내리지 못하고 있다. 혹자는 가까운 전자를 주산이라 하기도 하고 현무정(玄武頂)이라 하기도 하며 혹자는 후자의 산봉우리를 주산이라고 한다.<sup>54)</sup>

9월17일 택지 천거가 봇물처럼 쏟아지자, “아무산이 산이고, 아무산이 다음이고, 아무산이 하이다.”<sup>55)</sup> 즉 상중하(上中下)로 구별하여 올려라’는 어명과 함께 능률적인 풍수 현장 답사를 위한 통행 계획까지 짚는다. 9월19일 호조판서 권준 등에게 양근, 미원, 교하, 원평, 용인 땅을 상지시켰고 21일 동소문 밖을 거둥하여 살폈고 9월 22일 신숙주 황수신 등을 보내 금천, 인천, 광주, 고양 땅을 상지케 했다.

달을 넘긴 10월에도 택지 작업은 계속되었으며, 10월 4일 예조 참판 이순지 등을 양주, 풍양에 보내 상지케 하고,<sup>56)</sup> 10월13일 강맹경·황수신 등에게 교하·고양 등지에 가 상지케 하다.<sup>57)</sup> 바로 이날 밤 10월13일 밤 3고에 강맹경 등이 돌아와 고양 동쪽에 묘자리가 있다고 보고 하다.<sup>58)</sup>

『밤 3고(鼓)에 강맹경 등이 돌아와 아뢰기를, “이제 고양 고을의 동쪽에 있는 도충제 정이의 분묘를 보니, 그 산이 쓸만하였습니다.” 하였다.』<sup>59)</sup> 10월 14일 고양현 봉현에 거둥하여 정이(鄭易)의 분묘를 보고 향배(向背)를 정하게 하다.<sup>60)</sup>

53)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세조9권 3년 원전7집 221면 002

54) 장영훈, 왕능풍수와 조선의 역사, 대원사, 서울2000, p112

55)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세조9권 3년 원전7집 222면 001

56)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세조9권 3년 원전7집 226면 001

57)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세조9권 3년 원전7집 228면 002

58)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세조9권 3년 원전7집 228면 004

59)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세조9권 3년 원전7집 228면 004

『임금이 고양(高揚)현 봉현(蜂峴)에 거둥하여 정이의 분묘를 관람하고, 임원준·안효례·노목·방문중 등으로 하여금 향배(向背)를 점쳐서 정(定)하게 하였다. 또 계양군 이증·정창손·강맹경·신숙주·황수신 및 여러 재추에게 명하여, 산봉우리에 올라 내려보아 살펴계 하니, 모두 말하기를, 곤산(坤山)이 간산(艮山)을 만들었다.'고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드디어 여러 재추(宰樞)와 시위 군사에게 술을 내려 주었다. 임금이 안산의 기슭에 올라, 산세를 관찰하는데, 방문중이 3년에 1보(三年行一步法)를 행하는 법과, 순산 순수의 세를 진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방문중은 그 모습이 정수충을 조금 닮은 듯한데, 그 배운 것도 또한 정수충만 못지 않다.” 하였다.』<sup>61)</sup>

자정(밤 3고(鼓))임에도 불구하고 세조에게 전하자 10월14일 날이 새자마자 그곳으로 거둥을 했다. 이곳이 오늘날의 서오릉(西五陵)이다.

그곳에는 도총제 정이(鄭易)의 무덤이 있었으나, 왕릉을 잡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례로 세조는 제9대 성종에게 할아버지가 된다. 또한 세조의 넷째 동생이 광평대군이다. 그러므로 광평대군은 성종에게는 작은할아버지인 셈이다. 그런데 성종 왕릉을 쓰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광평대군의 유해를 이장시켰다. 왕릉 앞에서는 작은할아버지의 선영도 일개 무덤에 불과했던 것이 조선왕조였다.

세조는 아버지였던 세종 왕릉을 잡으려 다녔고, 형 문종의 능을 그리고 이제는 자식인 의경세자의 자리도 잡게 되어 풍수지리에 대해서는 국풍 못지않은 해안이 있었던 것이다. 후일에는 머느리 무덤까지 관여했을 정도이다. 그날 현장에서 세조는 정이의 무덤 관산을 시작으로 국풍인 지관들에게 뜬쇠를 놓아 좌향(坐向)을 잡게 한 수 대신들에게 혈로 이어지는 산봉우리로 올라가게 했다. 주산 봉우리에 오른 대신들이 서남쪽으로 뻗어 내리는 산줄기에 맞추어 동북으로 좌혈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세조는 맞다는 좌향판정(坐向判定)까지 했다. 이로 인하여 의경세자의 덕종릉은 동북좌혈(東北坐穴)에서 서남쪽을 바라보는 간좌곤향(艮坐坤向)으로 매김질이 정해지게 된다.

60)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세조9권 3년 원전7집 228면 001

61)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세조9권 3년 원전7집 228면 001





그림 30 세조의 내심

다시 세조가 앞쪽에 있는 산에 올라 산세를 관찰하자 지관 방문중(房文仲)이 세조의 기분을 거들어 주었다. 3년행 1보법(三年行一步法)이 어찌구, 순산순수지세(順山順水之勢)가 저찌구 하면서 산세와 수세가 가히 평온하고 뒤쪽 내맥의 줄기 한 발짝이 3년 발복을 하므로 발복이 연달아 일어나는 등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부를 하자 이를 듣고 있던 세조 역시 기분이 몹시 좋았던지 일개 미관말직 방문중을 당시 왕세자 장례 총책임자였던 수묘관(守墓官) 아원군 정수충(鄭守忠)에 못지않다고 격찬을 했고 시위했던 군사들에게까지 술을 내렸을 정도였다.<sup>62)</sup>

10일 후인 10월24일 조묘 도감에 세자묘 석물 설치에 대해 전지하다.<sup>63)</sup>

『조묘 도감에 전지하기를,  
“세자묘에 석실 및 석상·장명등·잡상은, 아울러 예에 의하고, 그 사대석 및 삼면석과 석난간·삼개체는 설치하지 말라.” 하였다.』<sup>64)</sup> 세조가 왕세자 무덤에 세울 석물과 그에 관한 조성물의 전지(傳旨)를 상세히 내리고 11월 24일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는 이곳에 장사를 지냈다.

62) 장영훈, 왕릉능풍수와 조선의 역사, 대원사, 서울2000, p114

63)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세조9권 3년 원전7집 232면 002

64)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세조9권 3년 원전7집 232면 002



### 3. 경릉(敬陵)의 특징

“경릉”은 동원이강릉이며 음택 원리에 따라 우상좌하의 왕릉 매김질을 철저히 했던 조선왕조였는데, 덕종릉 우측에 또 다른 능이 하나 있다. 이 능은 조선 왕릉 중에서 지어미가 지아비보다 더 높은 우상(右上) 자리에 매김질되어 있는 덕종비인 소혜왕후 즉 인수대비의 능이다. 석물도 지아비보다 더욱 풍부하게 지어미 쪽이 잘 차려져 있다. 대비 신분이었던지라, 왕세자에 불과했던 지아비보다 더 높은 우상 자리에 능이 매김질 것이다.

“왕릉 장법에는 매김질의 원칙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 이때 남존여비(男尊女卑)보다 군신관계(君臣關係)가 우선이 된다. 종묘사직을 위한 조선 왕릉이기에 군신관계를 더욱 중요시했던 것이다. 따라서 왕세자인 지아비보다 왕대비인 지어미를 높이 쳤던 조선 왕릉 장법을 우리는 경릉의 매김질에서 알 수가 있다.



그림 31 좌하



그림 32 우상

#### 4. 경릉(敬陵)의 발복(發福)

지아비인 덕종(德宗)은 1457년 20세로 요절(夭折)하였고 당시의 신분은 왕세자였다. 그런데 지어미인 덕종비는 48년이나 더 살다가 1504년 춘추 69세로 승하하였고 지아비보다 한 살이 더 많았던 지어미는 한창 나이 21세에 과부가 되었고 지아비가 죽기 한 달 전에 탄생한 차남 자을산군(者乙山君)이 훗날 성종이 되었으며 그 뒤 일들이 정말 잘 풀려갔다.

32세 때 제7대 세조가 승하하였고 제8대 예종이 보위를 이었는데, 예종의 나이가 겨우 19세로 왕위를 어림잡아도 32세 과부가 먼저 가기 전까지는 끝날 것 같지가 않았지만 예종 재위1년2개월 만에 예종이 요절하여 버린 것이다. 다시 왕위 계승자를 교지할 결정권자는 세조비였던 정희왕후 윤씨였다. 왕통 계승 후보자는 3명이 있었고 그 중 1순위는 예종의 직계 장남 제안대군으로, 2순위는 소혜왕후의 장남인 16세의 월산군, 3순위에 13세인 자을산군 순위로 매겨져 있었다. 그런데 세조비는 막무가내 제3순위 자을산군의 등극을 전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조선 역사상 왕이 승하한 다음날 바로 즉위시킨 유례는 없었기에 이는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라며 조정 대신들은 논란을 일으켰다. 세조비는 세조의 유명(遺命)이 있었다고 우겼지만 이를 부인할 증거가 없었기에 자을산군이 그대로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되었고 이때 소혜왕후는 15년간의 왕세자비신분에서 당장에 인수대비[소혜왕후(昭惠王后)]로, 5년 후에는 왕대비로 올랐던 것이다.

자을산군을 왕위 계승자로 선택한 세조비 윤씨의 내심은 왕실의 번영은 왕손의 다산에 있었으나 덕종, 예종 등이 하나같이 모두 20세에 요절을 당해 상심하던 중 비록 13세에 불과하지만 자을산군의 튼실함을 알았고 게다가 장남 무발복이라는 소문(국풍(國風) 최양선이 떠들다 수양대군에게 얻어맞았던 일도 있었다)에 걸리더라도 자을산군은 차남이기에 여러 가지 조건에도 딱 맞아 떨어졌다.

이러한 성종의 등극 이유를 훗날 역사 역시 뒷받침하고 있는데, 먼저 제5대 문종은 1남을 두었고 제6대 단종은 후사가 없었다. 제7대 세조

에게는 4남이 있었는데, 왕위에 접근하면 모두 요절해 버렸고 제8대 예종 역시 1명으로 후사를 마쳤다. 그런데 자을산군이 제9대 성종으로 등극하자 완전히 판세를 바꾸어 놓는다. 재위 25년 1개월 동안 12명의 여자들에게 비(妃, 중전), 빈(嬪, 정1품), 귀인(貴人, 종1품), 숙의(淑儀, 종2품), 숙용(淑容, 종3품)이라는 각종 명칭을 내리면서 자녀가 무려 16남 12녀가 도합 28명을 생산하였던 것이다.

제9대 보위에 오른 자을산군의 어머니는 후일 당당한 대왕대비까지 이르렀다. 여기서 증명이 되듯이 경릉 조성 후 당대에 자손이 천하를 호령하는 한 나라의 지존인 왕이 되어 귀(貴)와 부(富)를 얻고 동시에 가물던 자손이 당대에 도합 28명이나 생산되어 귀(貴)부(富)손(孫) 발복 3요소를 모두 취하는 발복지 임을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었다.

경릉 이외 다른 능의 위치를 살펴보면 모두 경릉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에서 경릉을 호위 하는 듯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릉은 발복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서오릉에 있는 능(陵) 중에서 첫째 능으로서 크게 손색이 없는 자리로서 명당이라 칭할 수는 있지만 용세로 바라보면 풍수전통 이론에는 일치하지 않는 사신사를 갖고 있는 특이한 혈(穴)처이다.

### 제 3 절 풍수측량을 통한 경릉의 사신사 분석

#### 1. 태조산에서 경릉까지의 지형지세

서오릉의 지형지세는 백두산에서 시작된 백두의 정기가 백두대간의 산줄기를 타고 한북정맥에 이르러 도봉산의 기암괴석을 이루고 서쪽으로 행진하면서 기세를 멈추지 않고 우이령을 지나 힘껏 솟구쳐 삼각산을 만든다. 이 삼각산에서 한줄기는 남쪽으로 하향하여 보현봉을 지나 북악으로 내려가 한양 도읍지를 탄생하게 하고, 또 한 줄기는 남서쪽으로 진행하여 비봉을 만들어 비봉에서 분벽을 하여 한줄기는 한양의 백호를 휘감게 하는 인왕산을 만들었고, 한 줄기는 서쪽으로 향하여 지금의 앵봉을 지나 한북정맥의 끝인 장명산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중 앵봉은 서오릉의 주산이 되며 앵봉에서 본 연구대상 왕릉인 경릉의 현무정까지 수많은 변역을 이룬 생룡으로 현무정을 탄생시켜 현무에서 개장과 천심을 이루어 경릉의 혈을 만들게 하였다. 태조산은 삼각산이요 증조산은 비봉이며 소조산은 앵봉으로서 태조산인 삼각산의 힘찬 기세가 보현봉을 통하여 비봉으로 향하고 비봉에서 산줄기는 거칠지만 기세 좋은 생룡이 박석고개를 지나 앵봉과 갈현동 산줄기를 타고서 시원하게 내리 뻗었다. 이 과정에서 서오릉의 주산인 앵봉까지 한혈육임을 증명하듯 앵봉의 한 단면에는 산살 바위가 붙어있어 마치 바위의 모양새가 삼각산의 그것과 비슷하다. 이것은 삼각산의 영향권에 있어 모두 악산(岳山)에 악봉(岳峯)이라 바위들로 솟구쳤고 백악과 인왕산 역시 악산이긴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악산은 세산(勢山)에 해당되기에 혈이 존재하지 못하지만 한북정맥의 끝자락인 노고산과 앵봉으로 내려가면서 이 지역은 형산(形山)으로 전환되어 서오릉인 용두동까지 오게 되면 나지막한 산으로 형성되어 혈(穴)이 맺혀지게 되었다. 이러한 삼각산에서 비봉에 이르러 앵봉까지 내려온 기세가 서오릉에 경릉을 입지케 한 원동력이기도 하며, 서오릉의 경릉은 다른 능에 비하여 특히 삼각산의 정기를 많이 받는 형세이기도 하다. 이는 왕권이 강한 시기의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한 조선왕릉 풍수의 결실이기도 하다.

## 2. 풍수측량

경릉을 중심으로 현무에서 경릉 혈(穴)까지의 용의 번역과정을 실제 측량을 통하여 성과도를 만들었다. 측량을 통한 사신사의 분석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실제측량 범위

측량을 통하여 현무에서 혈까지 즉 내룡맥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측량을 하였으며 주위의 여건상 청룡은 세밀하게 측량을 할 수는 없었고 백호는 소혜왕후(인수대비)의 능이 있는 관계로 비교적 세밀하게 측량을 할 수 가 있었다. 경릉의 현무정에서 혈까지의 내룡맥, 인수대비의 능이 있는 백호, 혈 앞의 전순부분이 측량의 핵심부위로서 이를 중심으로 측량수치를 이용하여 성과도를 만들 수 있었으며 성과도는 그림34와 그림42를 참조한다.



그림 33 경릉의 풍수측량

2) 측량기관 및 장비내역

측량일 : 2006년 5월 16일

측량기관 : 학진산업개발주식회사,

측량기기 : Geodimeter 600S pro 외 주변장치

측량지휘 : 양희왕 이사 외 4명

3) 측량 및 서오릉 문화유산 자료 협조

문화재청 고양지구 관리소

4) 경릉 내용맥의 측량결과표

| 번 호 | 측 점     | 용의 길이 | 변역각도  | 보정 후 변역 각도   |
|-----|---------|-------|-------|--------------|
| 0   | 5 ⇒ 4   | 20.41 |       |              |
| 1   | 4 ⇒ 7   | 9.80  | 9     |              |
| 2   | 7 ⇒ 10  | 23.16 | 28    | 실측 112도÷4=28 |
| 3   | 10 ⇒ 12 | 18.62 | 25    | 실측 50도       |
| 4   | 12 ⇒ 14 | 11.00 |       |              |
| 5   | 14 ⇒ 82 | 12.73 |       |              |
| 6   | 82 ⇒ 81 | 19.32 | 27    |              |
| 7   | 81 ⇒ 80 | 22.90 | 34    |              |
| 8   | 80 ⇒ 79 | 25.83 | 34    |              |
| 9   | 79 ⇒ 78 | 30.16 | 28    |              |
| 10  | 78 ⇒ 77 | 18.82 | 15    |              |
| 11  | 77 ⇒ 76 | 24.92 | 44    |              |
| 12  | 76 ⇒ 75 | 29.31 | 46    |              |
| 평 균 |         | 20.54 | 29.00 |              |

표 3 경릉의 내용맥 풍수측량 성과표

5) 경릉의 용맥 측량 성과도

경릉의 측량 성과표를 이용하여 그림34와같이 경릉 용맥 측량도를 만들었고, 표3의 결과수치를 가지고 사신사를 분석하여본다.





### 3. 풍수측량을 통한 사신사 분석

측량을 통하여 용의 길이와 변역각도를 측정한 자료를 기초로 사신사를 분석하여본다.

#### 1) 현무(玄武)

경룡 혈의 현무정은 주산인 앵봉에서 힘차게 내려온 용맥이 정변역으로 삼분벽을 이루고 있다. 이중 한 줄기가 경룡의 혈로 내려오고 있고 다른 한 줄기는 창룡천 방향으로 진행 하면서 인수대비의 능이 있는 곳 (경룡의 외백호(外白虎))에서 분벽을 하여 경룡의 혈을 감싸주는 외백호를 이루게 하고, 진행하는 용맥은 현재의 권율부대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창룡천에서 멈추게 된다.

#### 2) 주작(安山)

청룡과 백호의 관쇄 너머로 약간 멀리 안대가 있으나 지금의 형국으로서는 안산이 유정하게 맞이해주는 형국은 아닌듯하다.

안산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현재의 지형지세가 많이 손상이 되어있고 관쇄 역시 혈처에서 관망을 하면 설기(泄氣)되는 형국이며 과거 손상 전에는 관쇄를 이룬 외청룡과 외백호를 안대로 삼았지 않았나 사료된다.

이렇게 표현 할 수 있는 것은 외청룡 끝이 좌선을 하면서 혈을 감싸고 외백호 역시 우선(右旋)을 하며 용미(龍尾)에서 혈(穴)을 응축하고 있는 지세의 흔적을 지금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기에 이를 토대로 표현하였다. 경룡은 외청룡 관쇄로서 남자 자손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혈처로 판단 할 수 있다.

#### 3) 청룡(靑龍)

경룡의 혈을 연구하면서 괄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풍수지리 전통이론에 따르면 청룡과 백호는 내 몸에서 분벽을 하여 혈을 감싸고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경룡의

청룡과 백호는 내 몸에서 분벽을 이루지 않은 사실이다.

주산(主山)에서 용맥(龍脈)이 진행을 하면서 경룡의 혈을 중심으로 먼저 도착한 한줄기의 용맥이 분벽을 하면서 좌선(左旋)으로 경룡의 혈을 감싸게 하고 또 진행하며 경룡의 혈을 이루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현장에서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내 몸에서 이론 청룡과 백호로 착오하게끔 형세를 갖추고 있어 측량을 하지 않았으면 발견을 하지 못한 중요한 성과였다. 이러한 청룡이 혈을 감싸면서 경룡의 혈에 충(沖)을 주는 곳에 당판(堂板)이 무너지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자손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결론 부분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 4) 백호(白虎)

백호 역시 청룡과 동일하게 내 몸에서 생성된 용맥(龍脈)이 아니고 청룡과 내룡맥을 지나 우선(右旋)을 하면서 발생된 외백호 이다. 그러나 내룡맥인 경룡의 혈을 중심으로 유정하게 우선을 하여 경룡의 혈을 중심으로 외청룡과 유정하게 관쇄를 이루고 용맥 자체가 안산 역할을 하여 백호용맥에 있는 인수대비의 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5) 내룡맥과 혈

내룡맥의 현황은 그림43을 참조하기로 하고 본신통인 혈까지의 주룡을 분석하여 표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용의 평균길이는 20.54m이고 평균 변역각도 29°로서 사룡은 없고 변역 또한 정변역 각도를 유지하면서 진행한 용(龍)이며, 혈 또한 지형지세에 맞추어 댕어진 혈(穴)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내룡맥(內龍脈) 자체로만 분석을 하였을 때는 경룡의 혈은 전통 풍수지리 이론과 동일하게 일치하는 생룡임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청룡과 백호는 내 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경룡의 혈이 명당(明堂)으로 확정지을 수 없는 사실에 안타까움이 있으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룡의 주인인 의경세자의 후손은 당대 최대의 발복을 누릴 수 있었다.

#### 4. 용맥과 주룡의 참고사진



그림 35 경능의 현무정을 향하여 힘차게 오르는 생룡



그림 36 오른맥 후 현무로 향하는 생룡





그림 37 현무에서 경릉의 내룡맥으로 향하는 용의 등줄기



그림 38 현무에서 내려온 경릉의 혈



그림 39 경릉의 잉(孕)



그림 40 경릉의 안대 1





그림 41 경릉의 안대 2



## 제 V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조선의 왕릉 중에서 왕권이 강한 시대에 군주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조성된 왕릉인 덕종릉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지형지세론에 입각한 전통 풍수지리 이론과 실물을 대비하여 이론과 실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연구·분석 하였다.

또한, 왕릉의 풍수지리 이론을 실물과 대조하여 확인하면서 후손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조선왕조실록을 통하여 발복을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연구 하였다.

왕릉(경릉)의 전통 풍수지리 이론과 실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현대과학의 산물인 측량 장비를 이용하여 용맥을 실측하고 사신사를 분석하여 보았다. 풍수지리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설명의 자료 부족으로 정형화된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서오릉의 경릉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측량을 한 결과, 이런 방법이 풍수지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합리적이며, 누구에게나 자료로서 제시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경릉의 사신사를 실측한 결과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웠던 용맥의 길이와 변역각도 등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었고 또 청룡과 백호가 주룡맥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진행하는 능선에서 분벽을 이루어 외청룡, 외백호로 이루어진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통 풍수지리 이론과 대비시켜 보았을 때 경릉의 혈은 명당이라고 확언 할 수는 없지만 내룡맥의 변역과 용의 길이를 평가했을 때는 제대로 품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비록 내 몸에서 만들어 지지는 않았지만 외청룡과 외백호의 관쇄가 유정하게 만들어져 있고, 멀리 안산의 품세도 갖추고 있어 망산(望山)을 했을 때는 우수한 혈처로 보여 진다.

이로서 세조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풍수 발복을 기대하고 만들어



진 왕릉은 그 당시에는 분명 명혈로서 인정이 되었겠지만 측량결과에 의해서 밝혀진 경릉의 품세는 전통 이론과는 차이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세조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릉은 세조의 마음을 읽었는지, 세조의 의지대로 매김질 후 덕종의 후손에게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발복의 증거들 즉, 예종의 아들인 제안대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하한 의경세자(덕종)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성종)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의 왕들은 자손이 귀했는데 성종은 무려 28명의 자손을 생산하여 왕권을 유지케 하는데 있어서 튼튼한 왕조를 이루게 하였다.

이것이 세조가 바라던 발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발복이 꼭 경릉의 혈의 영향에 의해서만 이루어 졌다고 볼 수만은 없고 자을산군의 양택지 영향도 받지 않았나하는 의구심도 갖게 되었다. 성종 등극 후 이전의 왕들은 경복궁에서 기거를 하였지만 성종은 일정기간 동안 창덕궁에서 정사를 보며 생활을 하였다. 이는 경복궁의 터와 창덕궁의 터에서 발생하는 기(氣)가 다름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청룡과 백호의 충(沖)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내 몸에 붙은 청룡과 백호가 아니기에 내 혈장에 충(沖)이 들어온다. 이러한 사실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현상을 경릉의 혈장에서도 확인이 가능 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성종의 아들 즉, 덕종의 맏손자인 연산군이 폐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다.

이상 본 연구를 통하여 풍수지리의 깊은 세계를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두 효(孝)와 동기감응(同氣感應)에 바탕을 둔 삶의 철학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의구심을 본 연구를 통하여 모두 밝혀내지 못함이 아쉬웠고, 또한 이 연구의 어려움이라 하겠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권영식, 외5인(1995), 지형분석, 교학연구사
- 김두규역(2001), 호순신의 지리신법, 도서출판 장락.
- 김종철(1991), 명당론요결, 오성출판사.
- 김항배(1997), 실용 풍수지리-실화와 이론, 일산
- 김항배(2004), 체험으로 설명하는 생활풍수, 경덕
- 박시익(2004),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 서선계, 서선술 저 김동규해(1990), 풍수지리 인자수지, 명문당.
- 손석우(2001), 육관도사의 풍수·명당이야기 '터' (상), 답게
- 손석우(2002), 육관도사의 풍수·명당이야기 '터' (하), 답게
- 신정일(2004), 다시 쓰는 택리지3(팔도총론-강원·함경·평안·황해편)
- 신정일(2006), 다시 쓰는 택리지1(팔도총론-경기,충청편)
- 신정일(2006), 다시 쓰는 택리지2(팔도총론-전라,경상편)
- 신정일(2006), 다시 쓰는 택리지4(북거총론-어디에서 살 것인가)
- 안국준(2003), 수택과 풍수길잡이, 태웅
- 이동춘, 나라는 자신이 해친 뒤에 남이 해친다, 수정당
- 이익중(1998), 한국의 특성에 맞는 터와 명당, 우성
- 이익중(2001), 복을 부르는 길한터 재앙을 부르는 흉한터, 우성
- 이정표, 김동규(2003), 인자수지, 명문당
- 이중환 저 이익성역(1994), 택리지, 을유문화사.
- 장영훈(2002), 영남의 풍수(부산경남편), 동학사
- 장영훈(2004), 서울풍수, 답리
- 장용득(1976), 명당론전집(하남의 비결), 신교출판사.
- 장재훈(2002), 한국의 화강암 침식지형,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 전창선, 어윤형(2003), 오행은 뭘까?, 세기
- 전창선, 어윤형(2003), 음양이 뭐지?, 세기

지창용(1977), 한국지리총람(명당찾아 삼만리), 명문당  
 채성우 원저, 김두규 역해(2002), '명산론', 비봉  
 최동환(2006), 천부경, 지혜의 나무  
 최민자(2006), 천부경, 모시는 사람들  
 최창조(1997), 한국의 자생풍수2(한국의 명당 자료집), 민음사  
 최창조 역주(1993), 청오경.금남경, 민음사.  
 최창조(1993),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민음사.  
 최창조(1993),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최창조(1997), 한국의 자생풍수1(한국의 명당을 찾아서). 민음사  
 최창조(1999), 한국의 풍수지리, 민음사  
 한규성(2005), 역학원리강화, 예문지  
 현진상(2000), 한글 산경표, 풀빛.

#### <학위논문>

박시익(1978), 풍수지리설과 건축계획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박시익(1987), 풍수지리설 발생배경에 관한 분석연구,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이세인(2006), 영남지역 명문고택의 풍수지리 고찰,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학계 홈페이지>

<http://www.feng-shui.pe.kr/> (박시익, 풍수와 건축)  
<http://www.korea-fengshui.com/> (김두규의 풍수이야기)  
<http://www.feng-shui.or.kr/> (성동환 풍수지리강의)  
 국사편찬위원회

## ABSTRACT

### **Analysis on "Sa-Shin-Sa (Four God Hills)" of Gyeong-Reung in Seo-O-Reung (Five Mausoleums at West) Cemetery, Royal Tombs of Chosun Dynasty, through Feng Shui Geometric Measurements**

by

*Duck-Hyoung LEE*

*Major in Feng Shui*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is to prove the fact that Pung-su is "practice of love" and "repayment of manes" (\*manes: spirits of deceased ancestors) through the research of Gyeong-reung, the first royal tomb enshrined in Seo-O-Reung (Five Mausoleums at West) Royal Cemetery. Gyeong-reung is the tomb of Jang (Deok-jong), Crown Prince of King Se-jo who died young at the age of twenty. Famous for his Pung-su expertise, King Se-jo espoused Pung-su to enhance regality during the reign of his government. In the hope of good fortune or "Bal-Bok," change in one's fortune for the better, Gyeong-reung was thoroughly planned and built by King Se-jo's adept Pung-su knowledge and sophisticated scheme to promote his continuing regime. In fact, after entombment of Gyeong-reung, King Se-jo enjoyed prosperity with his descendants succeeding his throne for a long time. This shows that Gyeong-reung is "Myoungdang," a flourishing or propitious tomb site, well representative of Pung-su principles. In this study, Gyeong-reung is proven scientifically as Myoungdang through modern technology of geometric measurements of it's location and landform.*

*In summary, this paper consists of five chapters:*

*Chapter 1 : Purpose and Methodology of Study.*

*Chapter 2 : Fundamentals of Pung-su Theory*

*Chapter 3 : Royal Tombs and Pung-su Site Analysis*

*Chapter 4 : Pung-su analysis on Four God Hills of Seo-O-Reung  
and Gyeong-reung*

*Chapter 5: Proven Pung-su facts on Gyeong-reung*

## 풍수측량을 통한 서오릉(경릉)의 사신사 분석

풍수지리는 “사랑의 실천”이며, 발복은 “영혼의 보답”이라는 사실을 본 논문을 통하여 사실을 증명하고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능역지인 서오릉의 경릉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조선의 풍수사상은 통치 철학인 유교의 충(忠), 효(孝) 사상에서 출발하여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다스린 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흔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곳이 서오릉과 같은 왕족의 집단 묘역이며, 묘역 조성 시 규모와 시설물들은 일반인들의 묘역(墓域)과는 다르게 대규모로 조성을 하고, 국왕을 중심으로 예조판서, 공조판서, 호조판서 등 현재의 장관급 총수가 국장(國葬)을 총괄하게 하여 왕권의 권위(權威)와 위엄(威嚴)을 갖추게 하였다. 하지만 이때 왕권(王權)과 신권(臣權) 사이에 힘의 균형(均衡)이 어느 한 쪽으로 기울었을 때는 풍수지리의 참뜻과는 다르게 자신의 치부(恥部)를 위하여 악용되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본 논문의 주제인 서오릉의 경릉은 왕권이 강한시대에 조성된 조선 초기의 능이며, 이 혼궁(魂宮)의 주인은 세조(世祖)의 장남이며 세자신분으로 승하한 의경세자의 능이다. 세조는 왕이 되기 전 두 번의 국상을 치루고 수색기제조라는 관직의 총수로서 풍수사상에 깊게 접근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다. 이때 얻은 세조의 풍수지리지식은 그 시절 국풍(國風)의 실력과 비교 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았으며 왕권을 장악하는데 있어서 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었을 만큼 풍수신봉자였던 것이다. 이런 세조에게 의경세자의 주검은 또 한 번의 풍수실력을 발휘하고 발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세조가 원하던 발복이 무엇이었을 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일 것이라 생각한다. 바로 자신의 직계 후손이 지속적으로 왕위를 계승하고 많은 자손을 널리 퍼트리려 강력한 왕권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세조가 바라는 최고의 발복이었을 것이다. 경릉은 이러한 세조의 내심과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훌륭하게 발복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발복의 증거

로서 자손의 다산(多産)과 이후 오랫동안 자신의 핏줄로 왕권을 계승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전통 풍수지리 이론과 일치하게 혈(穴)처를 확보하였는지를 현대과학의 산물인 측량장비를 활용하여, 풍수지리의 핵심인 사신사의 현황을 확인하여 전통 풍수지리 이론과 대비시켜 경릉이 명당(明堂)인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본 논문의 핵심내용이다.

본 논문의 제 2 장에서는 풍수지리의 기본 이론 중 우리나라의 지형 지세와 본 연구에 필요한 풍수지리의 기본 이론을 전개하여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 지역

제 3 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이 조선왕의 능침지(陵寢地)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지역과 조성 시 관계되는 국가의 기관을 설명 하였다.

제 4 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경릉이 속해있는 서오릉의 현황과 경릉의 기초자료 그리고 풍수측량을 통한 경릉의 사신사(四神砂)를 분석하였다.

제 5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서오릉의 경릉이 세조가 바라던 데로 훌륭하게 발복을 해 주었지만, 경릉의 지세가 전통 풍수지리 이론과는 약간 다르게 구성되어진 것을 밝혀내고 그 사실을 언급하였다. 성종의 왕위 등극과 이후 다산(多産)을 하는 과정에서 양택의 영향도 많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상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풍수지리는 효(孝)와 동기감응(同氣感應)에 바탕을 둔 삶의 철학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